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발간사

계양의 터줏대감들 ~~

먼 옛날부터 우리의 곁을 지켜오고 있는 고목들이다.

문화원에서는 계양의 향토지 발간사업으로 계양지역의 오래된 큰 나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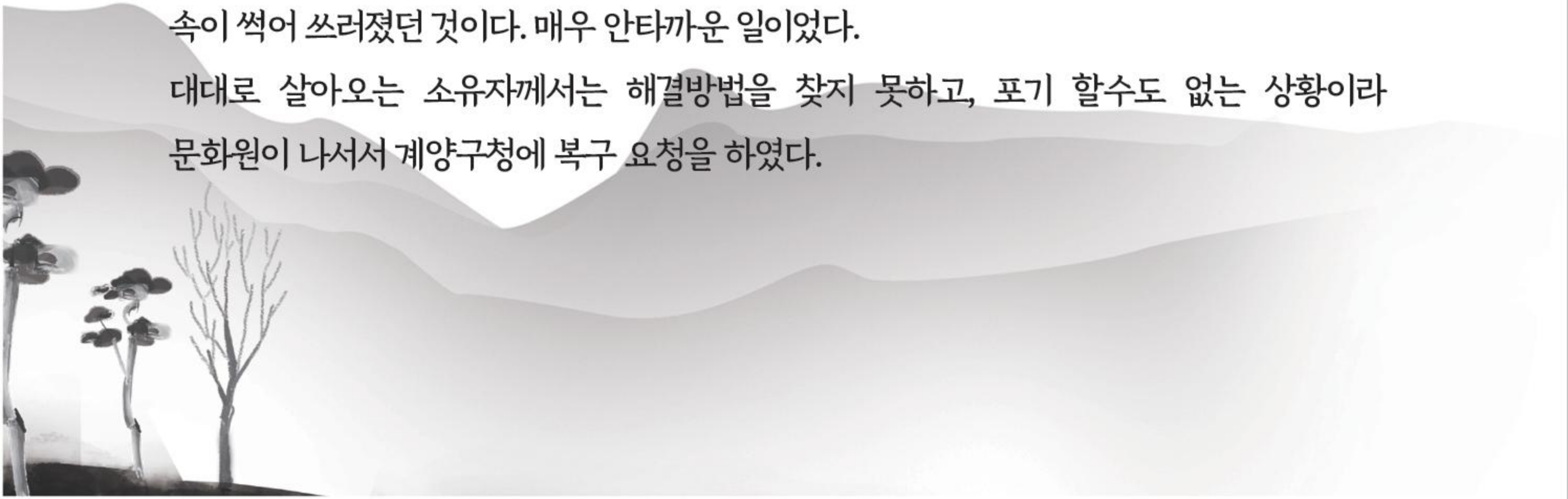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100년 이상이 되었거나 특이한 고목들이 18주로 파악되어 계양의 고목 이야기를 집필하게 되었다.

고목들 중 두그루는 수령이 8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200년대 고려시대에 심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나무다.

계산동 부평향교 아래 주택가에 있는 느티나무는 조기준 씨가 집필한 책에 수령이 850년 이상 된 고목으로 느릅나무라 기록되어 있으나 전문가가 확인하기로는 느티나무로 보고 있다. 구에서 보호하여 방부처리 하였으나 워낙 고목이어서 살아가기가 버거운 모습이다.

다른 한그루는 목상동 개인 주택에 있는 800년이 넘는 것으로 보는 측백나무이다. 이 측백나무는 중부 지방에서는 이리 오래된 나무가 없다하여 귀한 나무임을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22년도 가을에 비가 많이올때 Y자로 생긴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다 오래된 고목이라 속이 썩어 쓰러졌던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대대로 살아오는 소유자께서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포기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문화원이 나서서 계양구청에 복구 요청을 하였다.



계양구청 윤환 청장님과 담당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처로 복구 되었고 지주께서도 보호수 지정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적극적인 관리로 천연고목으로 거듭나길 바랄뿐이다.

또한 현재 부평 초등학교 내에 있는 부평 도호부 관아의 풍치목으로 심어 졌다고 알려진 약 600년이 된 두 그루의 은행나무도 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좀 더 많은 애정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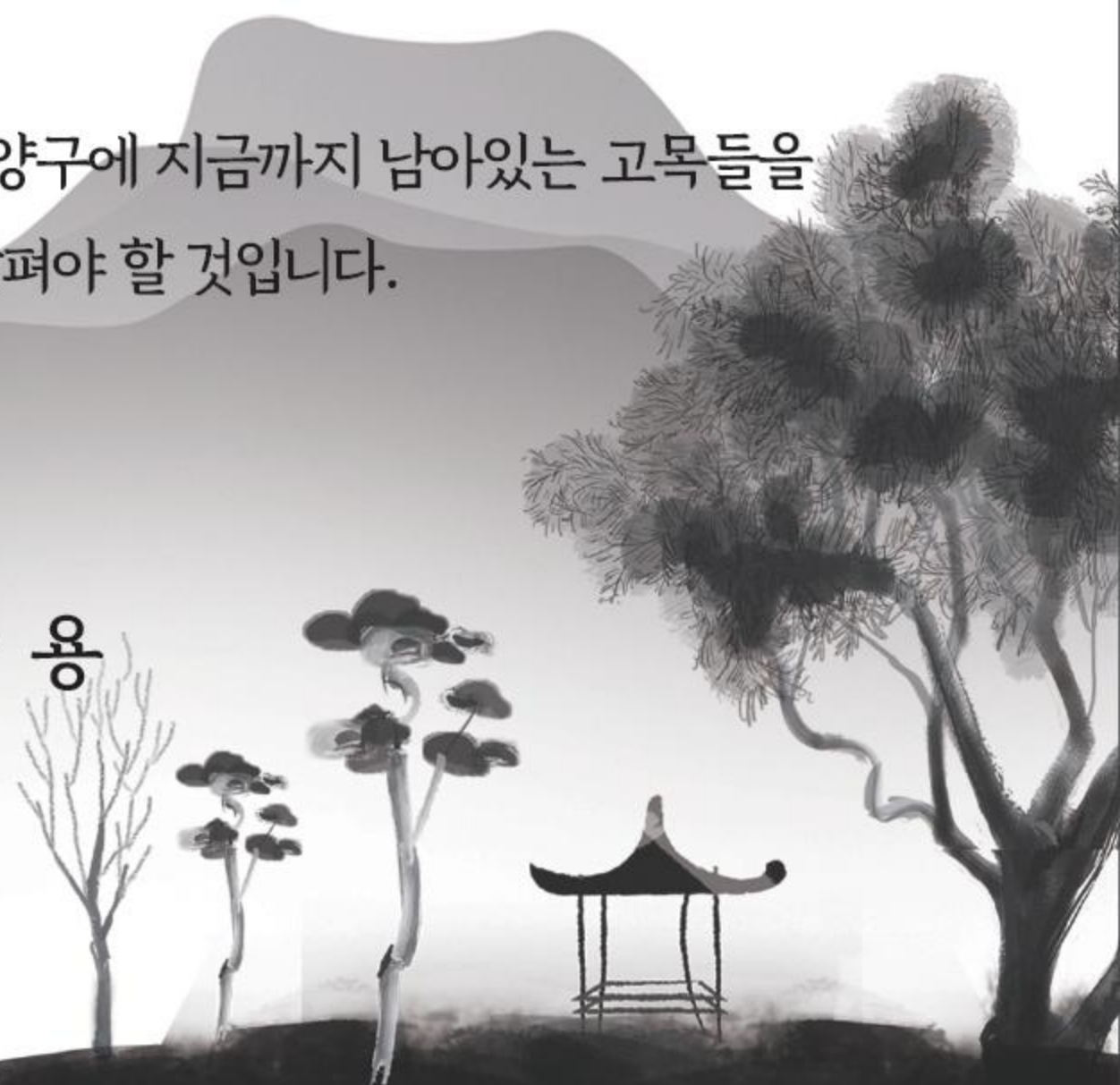
본 책자는 인천시 문화원 특성화 사업비를 받아서 시작 하였으나, 일년 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 였다고 생각한다. 발간하면서 잘못 기록 되었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수년 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가 발간이 있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

특히 사계절 사진 촬영을 해주신 문화원 사진 동아리(문사.동) 원대규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열정에 감사 드리고, 함께 수고해주신 이형재 문화원 이사님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고목 이야기를 집필 해 주신 김현석 선생님과 나무의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장정구,배창호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인 계양산을 중심으로 녹지 공간이 많은 계양구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목들을 매년 봄 푸르른 잎이 돋아 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2022. 12

계양문화원장 이 찬 용





축사

계양의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양구의 향토적 특성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보호수들의 내용을 담은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많은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주신 계양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호수는 번식이나 풍치 보존, 학술 참고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나무를 이야기 합니다. 계양구 내에는 이러한 역사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보호수들이 많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 태종 18년 부평도호부청사 완공 시 주변의 경관을 위하여 풍치목으로 심었던 계산동 은행나무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1호 문화재로 약600년간 구민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무려 700년간 마을의 정자목으로 오랜 세월을 견뎌온 계산동 느티나무는 계양의 유구한 역사만큼 나무 구석구석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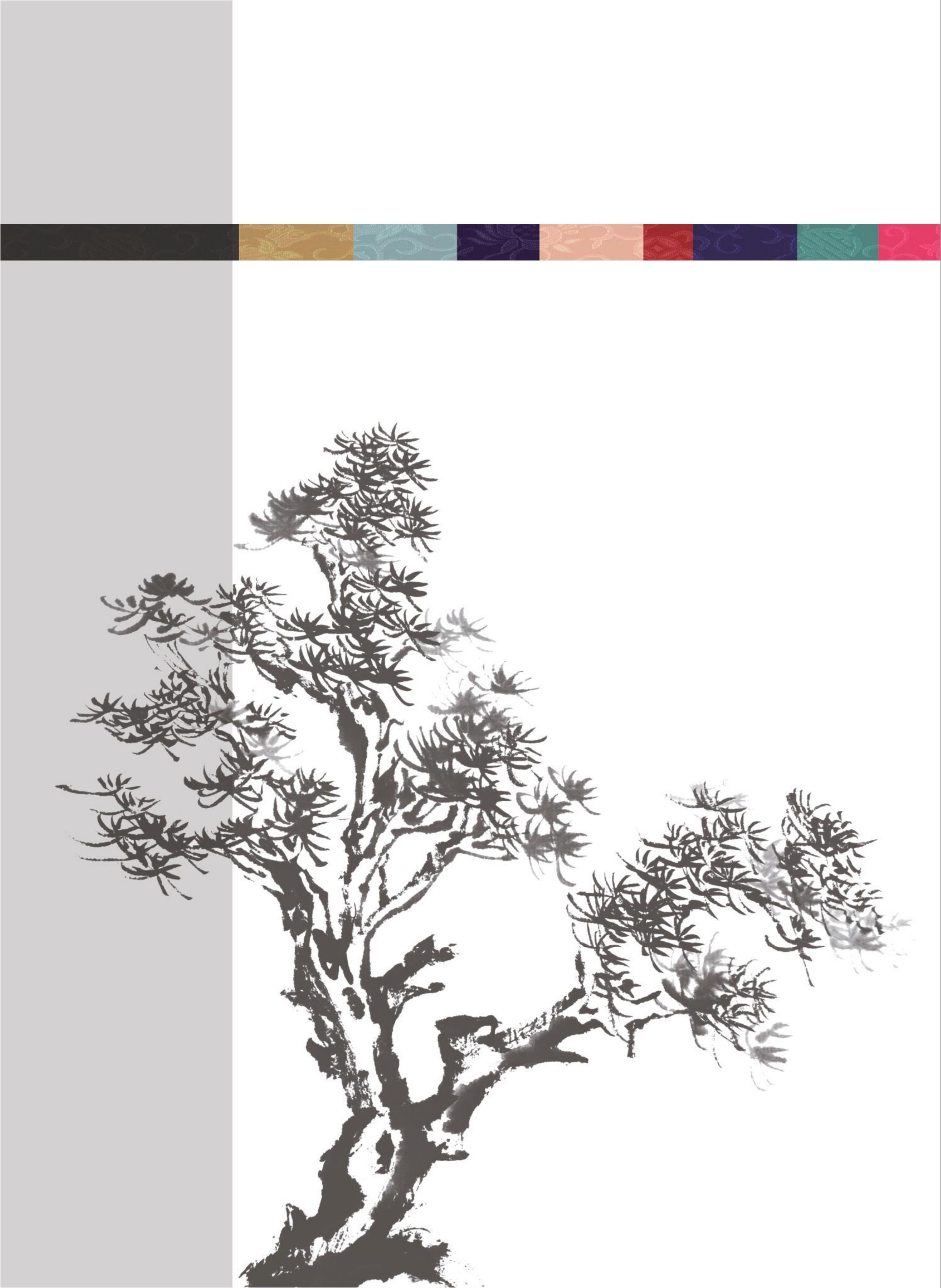
동양동 향나무, 장기동 백합나무, 목상동 측백나무, 효성동 팽나무 등 마을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마을 쉼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계양의 향수가 되어준 많은 보호수들에 대한 기록은 계양의 과거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동시에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 그 숨결이 이어지는 계양의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공존하는 계양의 미래 발전에 있어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책을 통해 계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우리 계양의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양구청장 윤 환





CONTENTS

1 계양구의 나무 ● 11

- 1) 기념물과 보호수 12
- 2) 계양구 보호수 수종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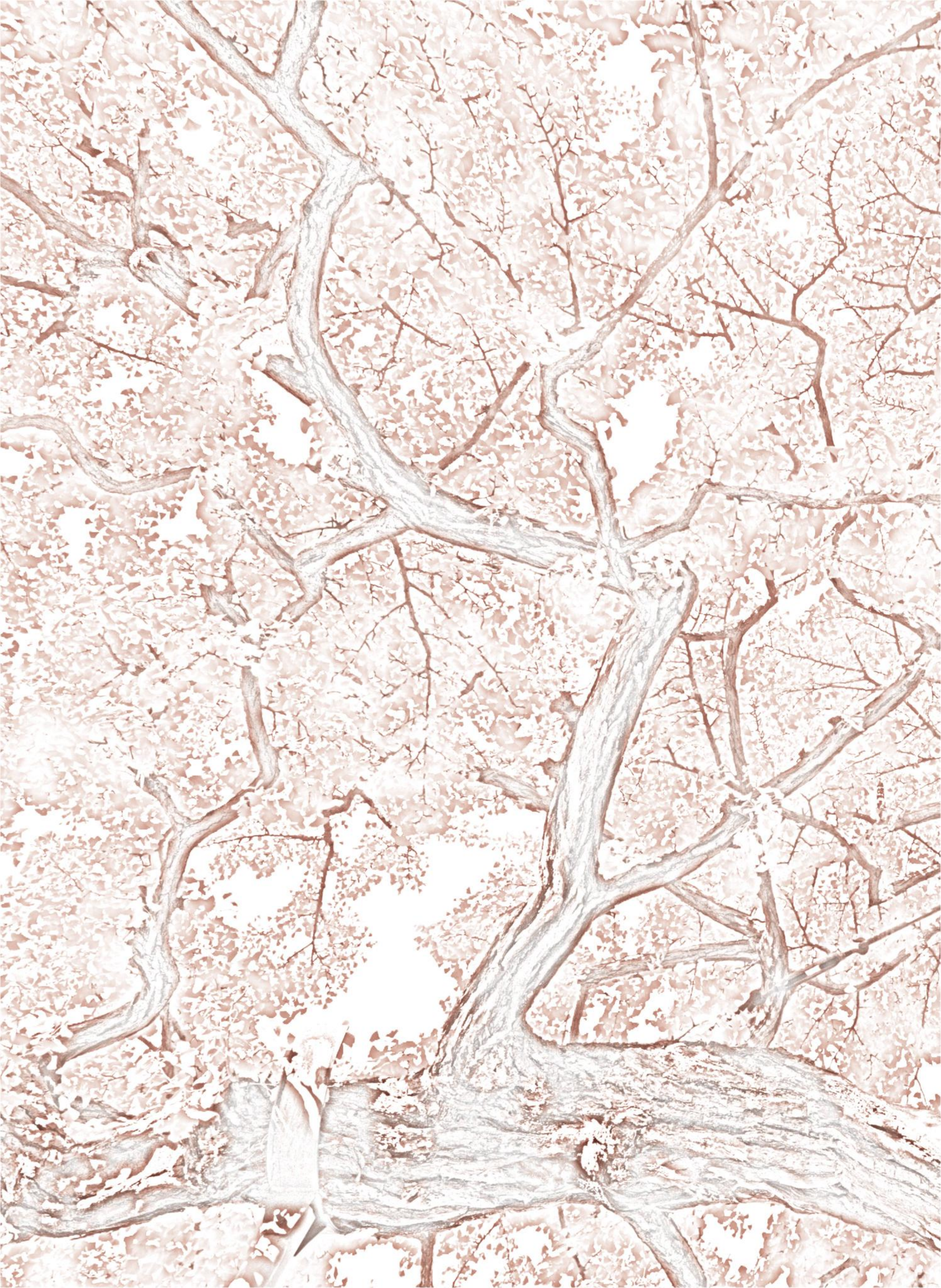
2 계양구의 보호수 현황 ● 20

- 1) 보호수 현황 20
- 2) 보호수의 위치 23

3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 25

- 계산동 27
- 동양동 87
- 상야동 95
- 장기동 105
- 갈현동 125
- 오류동 137
- 목상동 167
- 효성동 175

참고문헌



1 계양구의 나무

장 정 구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

우리나라 곳곳에는 노거수 등 큰 나무들이 많다. 노거수는 그 마을의 오랜 역사문화를 상징한다. 큰 나무들이 있는 마을은 대부분 역사와 전통이 유구한 곳이다. 전국적으로 보호수 수종으로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소나무 등이 많다. 전쟁을 겪으며 산과 들의 수많은 나무들이 땔감으로 베어질 때에도 마을에서 당산목이나 정자목, 풍치목들은 특별히 보호해 지금에 이르렀다.

당산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염원하는 고사를 지내던 곳이고 인천의 섬 지역에는 팽나무와 소사나무 등 당산목(堂山木)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자목은 마을 어귀나 한복판에 자리를 잡거나 서당이나 향교 등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던 나무이다. 특히 느티나무가 많다. 햇볕을 막아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풍치목(風致木)은 멋스러운 경치를 위해 심거나 특별히 보호한 나무인데, 바람을 막거나 마을을 외부로부터 차단할 목적으로 심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념목들을 많이 심는다. 오래전에 식재한 가로수들이 그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며 미세먼지농도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조류 등 야생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처이며 식물유전자원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예부터 그 마을의 공동체와 함께 해온 지역의 상징물로 여전히 주민들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자원이다.

1) 기념물과 보호수

노거수들은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다. 노거수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문화재로 지정보호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그중 기념물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그 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것은 천연기념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시도기념물이다.

나무 중에서 인천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대청도 동백나무 북한계지,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와 갑곶리 탕자나무, 마니산 참성단 소사나무,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 장수동 은행나무 등이 있다.

장수동 은행나무는 1992년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2월 8일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지정되었다. 수형이 우수하고 높이가 6.3m로 우리나라 무궁화 중 가장 커서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백령도 중화동 무궁화나무는 태풍으로 뿌리가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져 고사하여 2019년 11월 1일 지정해제되었다.

나무 중에서 인천광역시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총 4그루이다. 중구 영종도 용궁사 느티나무 2그루, 보문사 향나무 1그루, 그리고 계산동은행나무가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산동은행나무는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 태종 18년(1418) 부평도호부청사 완공 시 풍치목으로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령은 약 580~600년, 높이 25m으로 1995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외에 ‘보호수’로 지정보호하는 나무들이 있다. 2020년말 기준으로 인천시지정 보호수는 116그루이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데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지정한다. 보호수의 지정, 지정해제 등을 위해 보호수심의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인천의 보호수 116그루 중에는 느티나무가 56그루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은행나무가 21그루, 소나무가 10그루, 회화나무와 향나무가 각각 6그루이다. 지역별로는 강화군이 69그루로 제일 많고

서구 13그루, 서구 13그루, 용진군 11그루, 연수구 8그루이고 계양구에는 3그루의 보호수가 있다.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면 시장은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보호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구에 보호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수가 지정되면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은 할 수 없게 된다. 계양구에 있는 나무 중에는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수령 600년의 은행나무와 부평향교 부근의 수령 700년의 느티나무가 1982년 9월 29일 보호수로 지정되었고, 동양동 595번지의 수령 250년의 향나무가 2019년 10월 29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또 인천시는 큰나무를 추가로 지정보호하고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계산동 부평향교 내의 향나무와 은행나무, 상야동경로당 향나무, 계양초등학교 백합나무 등 4그루가 2003년 큰나무로 지정되었다.



2) 계양구 보호수 수종

은행나무

열매가 살구같이 생겼지만 과육 속에 흰빛이 나는 종자가 있어 은행(銀杏)나무라 불린다. 두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고 해서 압각수(鴨脚樹)라 하기도 하고, 나무를 심으면 손자대에 가서야 열매를 얻는다고 하여 공손수(公孫樹)라 불리기도 한다.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으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은행나무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의 하나로 은행나무과에는 1속, 1종만이 있다. 예전에는 사찰이나 향교에 많이 심었고 최근에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었는데 최근에는 과육에서 나는 악취로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열매는 식용, 약용으로 쓰이고 목재는 가구제로 사용한다. 신라의 마의태자가 심었다고도 하도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자란 것이라고도 하는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은행나무처럼 은행나무는 민속과 설화에 자주 등장한다.

계양구에는 부평초등학교 내에 은행나무 2그루가 각각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1호와 인천시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계산동 부평향교 내 은행나무는 큰나무로 지정되어 있다.

- 계양구의 은행나무 : 계산동 부평초등학교 은행나무1(지정 보호수)
계산동 부평초등학교 은행나무2(지정 보호수)
계산동 부평향교 은행나무1(지정 큰나무)
계산동 부평향교 은행나무2(지정 큰나무)
장기동 황어장터길 은행나무(비지정 보호수)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래 사는 나무 중 하나다. 한적한 시골의 마을 입구에는 어김없이 큼직한 느티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느티나무는 은행나무와 함께 천년을 훌쩍 넘기는 장수목으로 마을의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면 마을사람들에게 푸르름을 선사하고 쉼의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다. 느티나무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니고 있으며,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장수나무라 2000년 산림청은 느티나무를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는 뉴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했다.

느티나무의 목재는 나무결이 곱고 황갈색의 색깔에 약간 윤이 나며 다듬기도 좋다. 건조할 때 갈라지거나 비틀림이 적고 마찰이나 충격에 강하며 단단하기까지 하여 '나무의 황제'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노랑에서 주황빛으로 이어지는 낙엽 단풍이 또한 일품이다. 암수한그루로 수꽃은 어린 가지 밑에 모여나고 암꽃은 위에 1개씩 달린다.

계양구에는 인천광역시 보호수로 지정된 부평향교 인근 향교로27번길 12의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곳곳에 제법 큰 느티나무들이 있다.

● 계양구의 느티나무 : 계산동 향교로 느티나무(지정 보호수)

갈현동 학교개길 느티나무(비지정 보호수)

오류동 느티나무1(비지정 큰나무)

오류동 느티나무2(비지정 큰나무)

향나무

향나무는 향이 나는 대표적인 나무로 나무 색깔이 붉은빛이 나는 자주색이라 하여 자단(紫檀), 나무에서 향기가 난다고 해서 목향(木香)이라고도 한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으로 세로로 얇게 벗겨진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늘푸른나무(상록수)로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다. 수나무 꽃은 노란색으로 가지 끝에 타원형으로 달리고 암꽃은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 둥글게 달린다.

열매는 다음해 여물고 씨앗을 남긴다. 제사를 모실 때 향불을 피우는 용도로 많이 심었고 최근에는 정원수로도 많이 심으며, 목재는 조각, 기구재, 향료로 이용하고, 줄기와 잎은 약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동해안의 바닷가 절벽에서 자생한다. 울릉도 도동항 옆 해안절벽에 수령 2500년의 향나무가 있는데 세계 최고령 향나무로 추정된다. 계양구에는 2019년 인천광역시 보호수로 지정된 동양동 595 향나무를 비롯하여 부평향교와 상야동경로당에 2003년 큰나무로 지정된 향나무가 있다.

- 계양구의 향나무 : 동양동 향나무(지정 보호수)
- 상야동 향나무(지정 큰나무)
- 계산동 부평향교 향나무1(지정 큰나무)
- 계산동 부평향교 향나무2(지정 큰나무)
- 오류동 향나무(비지정 보호수)

소나무

소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예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나무이다. 우리나라 문학과 예술작품에 자주 등장하며 생활과 정신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나무다. 특히 조선시대 매화와 대나무와 함께 세한삼우(歲寒三友)로 선비의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다. 궁궐을 짓는데 사용되었고 중요한 소나무숲은 봉산(封山)으로 특별관리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침엽수로 나무껍질이 적갈색이라 적송(赤松)으로 불리고 육송(陸松), 여송(女松) 등으로도 불렸다. 암수한그루로 어린 가지 아래쪽에 여러 개의 수꽃이 달리고 위쪽에 암꽃이 1~3개 달린다.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봄바람에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루가 날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적송이라 불리는 소나무와 달리 곰솔이라는 소나무도 있는데 주로 바닷가에 자라는 해송(海松)이라고도 하고 줄기가 검다고 해서 흑송(黑松)이라고도 한다.

충북보은의 속리 정이품송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중 소나무가 제일 많다. 계양구에는

계양산에 조림용으로 식재한 외래종 소나무인 리기다소나무가 많다. 계양문화회관 앞 참나무와 연리지 소나무가 있고 계양구청 주변으로 가로수로도 심었다.

- 계양구의 소나무 : 계산동 계양문화회관 앞 소나무(비지정 보호수)

백합나무

꽃과 함께 열매의 모양이 원예식물인 튤립을 닮아 튤립나무라고도 부른다. 목련과의 나무로 크게 자라는 큰키나무다. 주로 관상용이나 가로수로 심었는데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암수한그루로 가지 끝에 튤립 모양의 노란색 꽃이 하늘을 향해 핀다. 촛대 모양의 열매는 갈색으로 바람이 불면 날개 달린 씨가 날린다. 일제강점기 도입된 백합나무는 병충해가 거의 없고 수명이 길며 빨리 자라 전국적으로 심었다. 잎의 길이가 약 15cm정도로 플라타너스(버즘나무) 잎과 비슷한데 끝이 수평으로 자른 듯하고 가을이면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시대 탄소흡수원으로 숲과 나무가 중요하다. 백합나무 30년생 한 그루가 연간 약 10kg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림이나 가로수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 계양구에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등에 가로수로도 심었다. 계양초등학교 백합나무는 높이 16m, 가슴둘레 3.6m로 2003년 큰나무로 지정되었다.

- 계양구의 백합나무 : 계산동 장제로 백합나무(지정 큰나무)

측백나무

측백나무과 나무 대부분은 외국에서 도입된 종인데 향나무와 측백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다. 대구, 단양, 안동, 영양 등 주로 석회암지대에 자생하는데 절벽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주택과 마을 주변으로 경관을 위해 많이 심었다. 나무껍질은 적갈색에서 회갈색으로 변하며 오래되면 세로로 가늘게 벗겨진다. 비늘 모양의 잎은 X자나 V자 모양으로 겹겹

포개져 달린다. 백자인이라 불리는 별사탕 모양의 열매는 약재로 신경안정에 효과가 있고 탈모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쥐라기말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측백나무는 화석으로도 종종 발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동에서 1억년 전 백악기 초기 것이 발견되었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지가 확인되면서 식물 분포학상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계양구에는 목상동 푸른농원 뒤편으로 큰 측백나무가 있다.

- 계양구의 측백나무 : 목상동 측백나무(비지정 보호수)

팽나무

팽나무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피는 흑회색이며 약간 거칠고, 잘 벗겨지지 않는다. 어린 잔가지에는 잔털이 밀생한다.

잎은 어긋나며(互生), 약간 두꺼우며, 상반부에 톱니(鋸齒)가 있고,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난다. 잎자루에는 부드러운 털(軟毛)이 있고, 가을의 단풍은 밝은 황색이다.(비교: 풍계나무(*Celtis jessoensis*) 잎은 엽질이 약간 얇고, 광택이 없다.)

꽃은 4월에 잎과 동시에 새 가지(新枝)에서 피며, 그 기부(基部)의 잎겨드랑이(葉腋)에서 수꽃이, 끝부분에서는 암꽃이 핀다.

열매는 9~10월에 알갱이열매(核果)로 익고, 둥글며, 등황색으로 달콤한 맛이 난다. 동물(주로 조류)에 의해 산포한다.

팽나무는 누기(漏氣) 있는 땅과 마른 땅의 경계에 주로 산다. 강과 육지의 경계인 자연제방이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 해안 충적 구릉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의 온화한 마을 어귀나 중심에서 마을나무나 당산나무로 자리 잡아 전통 민속경관을 특징짓는 대표 종이다.

- 계양구의 팽나무 : 효성동 팽나무- 도당나무 (비지정 보호수)

참나무

참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고목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수종이 있다. 목재는 건축 재료나 가구 재료로 널리 쓰이며, 숯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된다. 열매는 묵을 만들어 먹거나 지혈제, 지사제로 사용한다.

- 계양구의 참나무 : 계산동 계양문화회관 앞 참나무(비지정 보호수)

잣나무

잣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교목이다. 높이는 10~30미터이고 나무껍질은 잣빛을 띤 갈색이며 얇은 조각이 떨어진다. 잎은 다섯 개씩 뭉쳐나고 바늘 모양이다. 암수한그루로 5월에 연두색의 단성화가 피고 열매는 긴 타원형으로 10월에 열리며 씨는 '잣'이라고 하여 식용한다. 재목은 건축, 가구재 따위에 쓰고 정원수로 재배한다.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꽃은 5월에 피고 수꽃이삭은 새가지 밑에 달리며 암꽃이삭은 새가지 끝에 달리고 단성화이다.

열매는 구과(毬果)로 긴 달걀 모양이며 길이 12~15cm, 지름 6~8cm이고 실편 끝이 길게 자라서 뒤로 젖혀진다. 종자는 날개가 없고 다음해 10월에 익으며 길이 12~18mm, 지름 12mm로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한다.

- 계양구의 잣나무 : 계산동 계양문화회관 앞 참나무(비지정 보호수)

2 계양구의 보호수 현황

1) 보호수 현황

■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년)	높이(m)	둘레(m)
인천시기념물 제11호	1992.05.15	어사대로 20 (계산동 943)	은행나무	600	25	10

■ 지정 보호수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년)	높이(m)	둘레(m)
인천광역시 4-7-1	1982.10.15	어사대로 20 (계산동 943)	은행나무	500	20.5	6.3
인천광역시 4-7-2	1982.09.29	향교로27번길 12 (계산동 974-24)	느티나무	700	10.5	5.3
인천광역시 4-7-3	2019.10.29	동양동 595	향나무	250	10	2.4

■ 지정 큰나무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소재지	수종	수령(년)	높이(m)	둘레(m)
계양구 7-1	2003.05.14	장제로 1288 (장기동 134)	백합나무	100	16	3.6
계양구 7-2	2003.05.14	벌말로565번길 12 (상야동 165-3)	향나무	미상	10	0.5 1.4 1.2
계양구 7-5	2003.05.14	계산로 41번길 9 (계산동 982-1)	향나무	미상	5.5	1.0
계양구 7-6	2003.05.14	계산로 41번길 9 (계산동 982-1)	향나무	미상	6	1.7
계양구 7-7	2003.05.14	계산로 41번길 9 (계산동 982-1)	은행나무	미상	17	3.0

■ 비지정 보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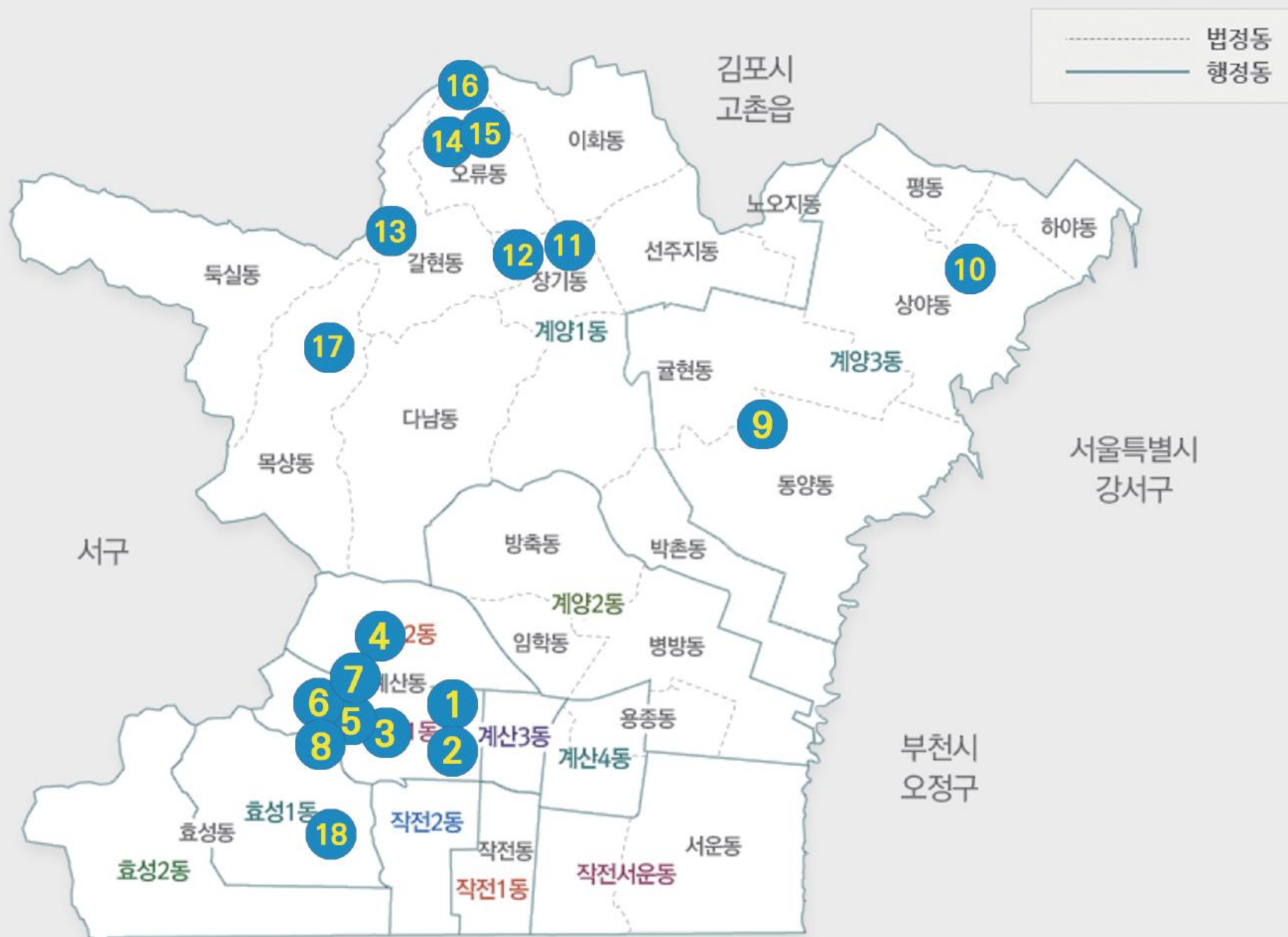
보호수명	소재지	수종	수령(년)	높이(m)	둘레(m)
장기동 은행나무	장기로 24 (장기동 138-5)	은행나무	미상	12	2.7
갈현동 느티나무	학교개길 15-29 (갈현동 114-2)	느티나무	80	22	3.8
목상동 측백나무	목상동 103-1	측백나무	800	10	1.5 1.6
효성동 팽나무(도당나무)	봉오대로 526-1 (효성동 167-27) 앞	팽나무	미상	8.5	2.1

보호수명	소재지	수종	수령(년)	높이(m)	둘레(m)
계산동 연리지나무	계양산로 35번길12-14 (계산동 산40)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미상	17	0.6
				15	0.9
				15	0.8
				19	1.2
					0.9
오류동 느티나무	장제로 1420-17 (오류동 140-1)	느티나무	80	32	3.8
		느티나무	80	30	3.75
오류동 느티나무	오류길 11-12 (오류동 137-1)	느티나무	미상	30	3.7
오류동 향나무	오류동 산4-8	향나무	200	10	

일러두기

- 천연기념물 및 지정 보호수의 현황은 지정 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비지정 보호수의 현황은 문헌 자료 및 구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본 책에서 비지정 보호수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지정·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지역의 역사를 지켜왔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의미한다.
- 지정 보호수는 지정번호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비지정 보호수는 행정동, 법정동을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 나무의 둘레는 지표에서부터 1.2m 두레를 기준으로 측정 하였으며,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경우 가지의 둘레를 측정하였다.

2) 보호수의 위치



- | | |
|-----------------------------------|---------------------|
| 1 계산동 은행나무(부평초등학교 내, 인천시기념물 제11호) | 10 상야동 향나무(지정 큰나무) |
| 2 계산동 은행나무(부평초등학교 내, 지정 보호수) | 11 장기동 은행나무 |
| 3 계산동 느티나무(지정 보호수) | 12 장기동 백합나무(지정 큰나무) |
| 4 계산동 연리지나무(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 13 갈현동 느티나무 |
| 5 계산동 향나무(부평향교 내, 지정 큰나무) | 14 오류동 느티나무 |
| 6 계산동 향나무(부평향교 내, 지정 큰나무) | 15 오류동 느티나무 |
| 7 계산동 은행나무(부평향교 내, 지정 큰나무) | 16 오류동 향나무 |
| 8 계산동 은행나무(부평향교 내, 지정 큰나무) | 17 목상동 측백나무 |
| 9 동양동 향나무(지정 보호수) | 18 효성동 팽나무 |

3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 계산동
- 동양동
- 상야동
- 장기동
- 갈현동
- 오류동
- 목상동
- 효성동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계산동

부평초등학교 내 은행나무



A. 계산동 은행나무(인천시기념물 제11호)

B. 계산동 은행나무(지정 보호수)

■ 부평읍치 계산동

계산동은 조선시대까지 부평지역의 읍치였던 곳이다. 읍치는 관아 등의 건물이 위치한 곳으로 일종의 행정 중심지를 말한다. 지금도 계산동에는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부평도호부 관아 건물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고, 향교도 자리를 잡고 있다.

계산동은 조선시대에 부내면(府內面)에 속한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으로 나뉘어 있는 마을이었다. 혹은 웃마을과 아랫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상동은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면서 부평리(富平里)로 바뀌기도 했는데, 이후 1940년에 인천부가 2차 부역 확장을 단행하며 다이쇼마치(大正町)로 이름을 바꾸었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지금의 이름인 계산동으로 다시 개명되었다. 현재 계산동은 조선시대 서면(西面)에 속했던 가현리와 신대리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계산동에는 조선시대에 마을의 풍수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조산(造山)도 남아 있다. 도시 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조산은 사라졌고, 일부가 정돈돼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계산동은 1899년 부평역이 건설된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역 주변을 중심으로 인구와 물자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옛 중심지로서 위치를 잃어가게 되었다.

은행나무

부평초등학교 내

수 종 : 은행나무

소재지 : 어사대로 20(계산동 943)

인천시기념물 제11호

지정년월일 : 1992. 05. 15

수 량 : 1주



계산동 은행나무
Ginkgo Tree of Gyesa

계산동 은행나무는
원산지가 중국으로 볼
심었으며, '은행이란
제거하면 은백색의 종
교경에 위치하고 있는
하기 위한 풍치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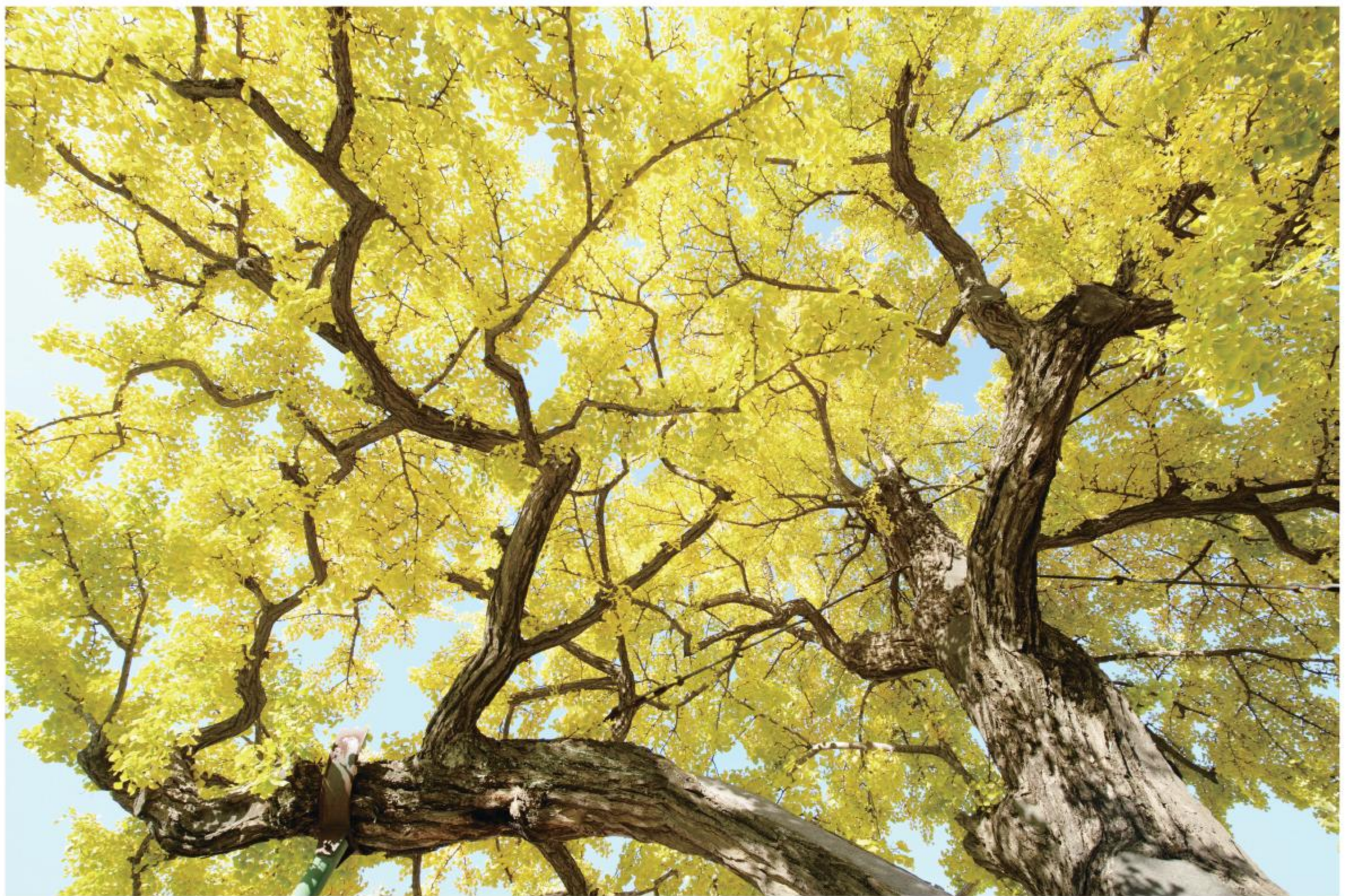


가을 秋

수령 : 600년

높이 : 25m, 둘레 : 10m





■ 계산동 은행나무 전설

수나무인 ‘계산동 은행나무’는 욕은지 앞에 서 있다. 욕은지는 현재 남아 있는 부평도호부 관아 건물 앞에 조성된 연못이다. 지금은 메마른 땅만 있지만, 과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연꽃이 피던 연못이었다. 욕은지 한가운데에는 돌다리로 연결된 작은 공간이 있어서 욕은지와 은행나무는 학생들에게 꽤 좋은 놀이터이기도 했다.

계산동 은행나무에는 여러가지 전설이 전한다. 부평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운동회나 소풍을 갈 때면 항상 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곤 한다. 그것이 욕은지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욕은지에는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기를 기다리는 이무기가 살고 있다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이무기가 승천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던 중 번개를 맞고 다시 연못 속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계산동 은행나무’에 나 있는 구멍 역시 이 때 이무기가 지나갔던 흔적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승천해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한이 서려서 부평초등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가 내리곤 했다는 것이다. 현재 욕은지의 물도 모두 마르고, 은행나무의 구멍 역시 시멘트로 채워져 있어서 전설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었다.

겨울 겨울 겨울



은행나무

부평초등학교 내

수 종 : 은행나무

소재지 : 어사대로 20(계산동 943)

지정 보호수(인천광역시 4-7-1)

지정년월일 : 1982. 10. 15

수 량 : 1주





세계를 품고 큰 꿈을 키우는 학교

원목

나이

높이

둘레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봄春

수령 : 500년

높이 : 20.5m, 둘레 : 6.3m



■ 부평초등학교와 은행나무

부평초등학교는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관아가 있던 자리다. 아마도 이곳의 은행나무는 부평도호부 관아가 조성될 무렵부터 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풍치목으로 심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수령은 500여 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부평초등학교는 1899년 3월 15일에 설립됐다. 당시 명칭은 부평공립소학교였다. 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에는 부평향교 명륜당 건물을 빌려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1905년에 부평소학교가 문을 닫고 1908년, 부평공립보통학교로 다시 개교하면서 부평도호부 관아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그 후 1938년에 부평공립심상소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1940년 인천대정공립소학교, 1941년 인천대정공립국민학교, 1945년 9월, 인천계동공립국민학교, 1969년 인천부평국민학교를 거쳐 1996년부터 인천부평초등학교로 부르기 시작했다.

가을 秋







부평초등학교 내에 있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수나무와 암나무의 한 쌍이다. 욕은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수나무이고, 신관 건물 앞에 있는 것이 암나무이다.

수나무는 인천시기념물 제11호로 지정돼 있고 ‘계산동 은행나무’라고 부른다. 1992년에 지정됐다. 수나무에 비해 높리와 둘레가 조금 낮은 암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다.

겨울
❄



느티나무

계산동

수 종 : 느티나무

소재지 : 계산동 974-24

지정 보호수(인천광역시 4-7-2)

지정일 : 1982. 9. 29.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700년
높이 : 10.5m,
둘레 : 5.3m







겨울
❄️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계산동

연리지 나무



A. 계산동 연리지 나무

■ 계양산신제와 연리지

계산리중계 사무실 앞에 가지가 서로 붙은 세 그루의 연리지 나무가 있다. 뿌리가 다른 소나무와 참나무, 그리고 잣나무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다가 서로 뒤엉켜 합쳐지면서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고 있다. 연리지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되기도 한다.

연리지가 있는 장소는 계산리중계(里中契) 사무실 앞이다. 계산리중계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계양산 산신제를 매년 음력 2월 1일과 10월 1일, 두차례 도맡아 수행해 왔다. ‘리중계’란 리(里) 주민들, 즉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계(契)란 뜻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친목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행사였던 산신제를 지키고 이어가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계양산 산신제는 본래 북쪽의 할아버지 산인 계양산과 남쪽의 할머니산인 망동산에 지내왔는데, 지금은 계양문화회관 앞 제당에서 주로 지낸다.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수 종 :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소재지 : 계양산로 35번길 12-14(계산동 산40)

비지정 보호수

수 량 :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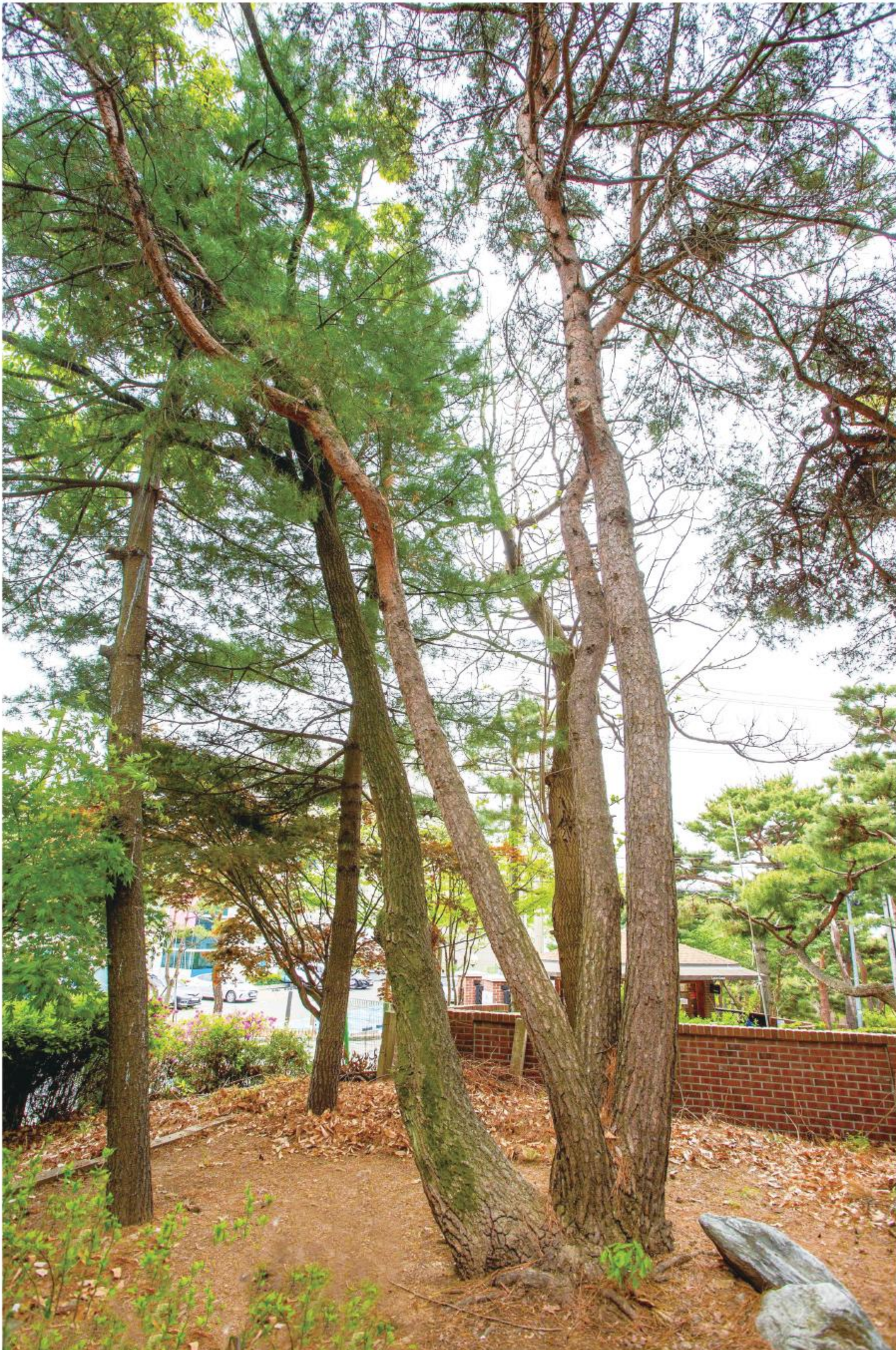


봄春

수령 :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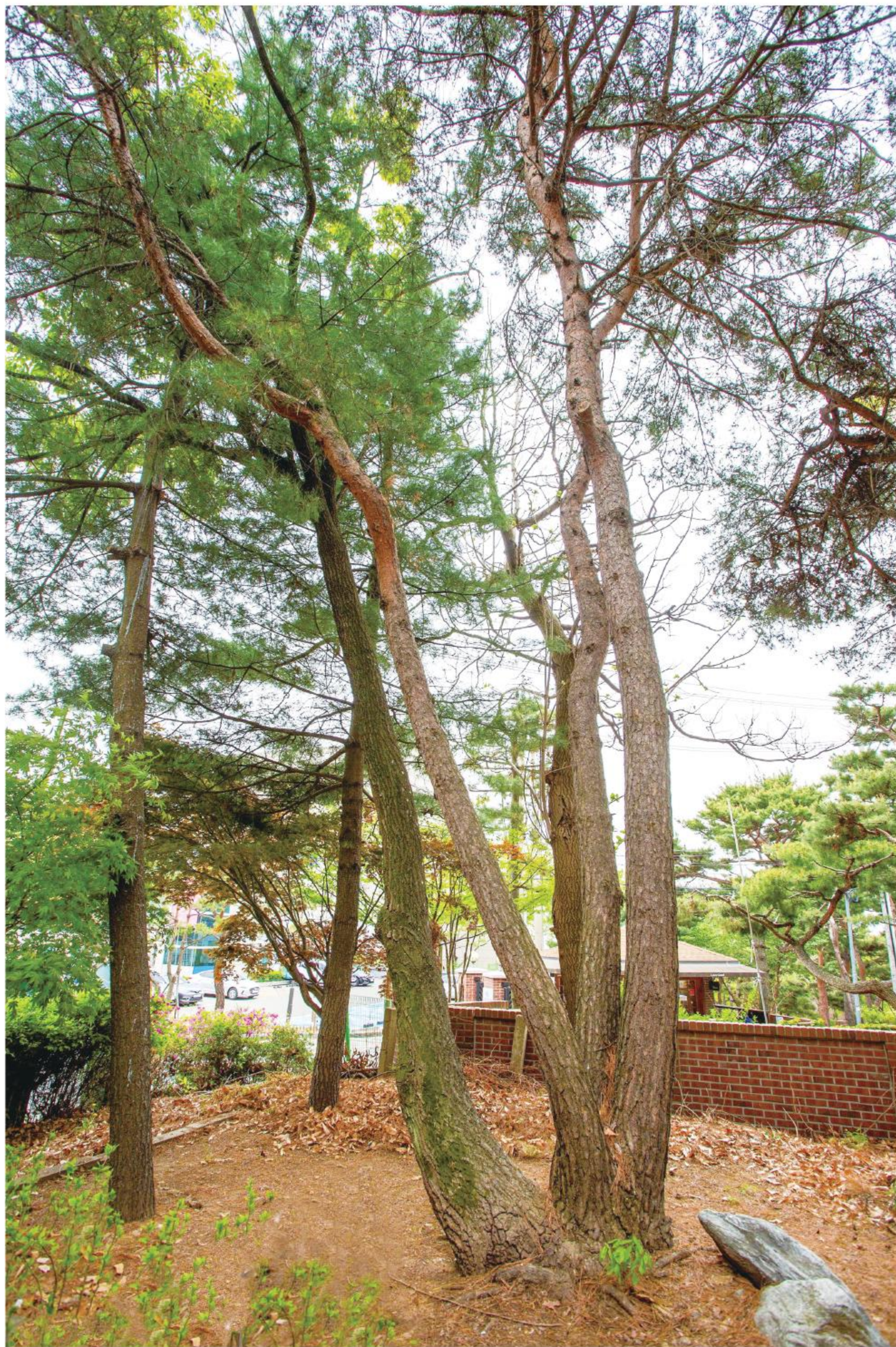
높이 : 17m(소나무) / 15m(참나무) / 19m(잣나무)

둘레 : 0.6m, 0.9m, 0.8m, 1.2m, 0.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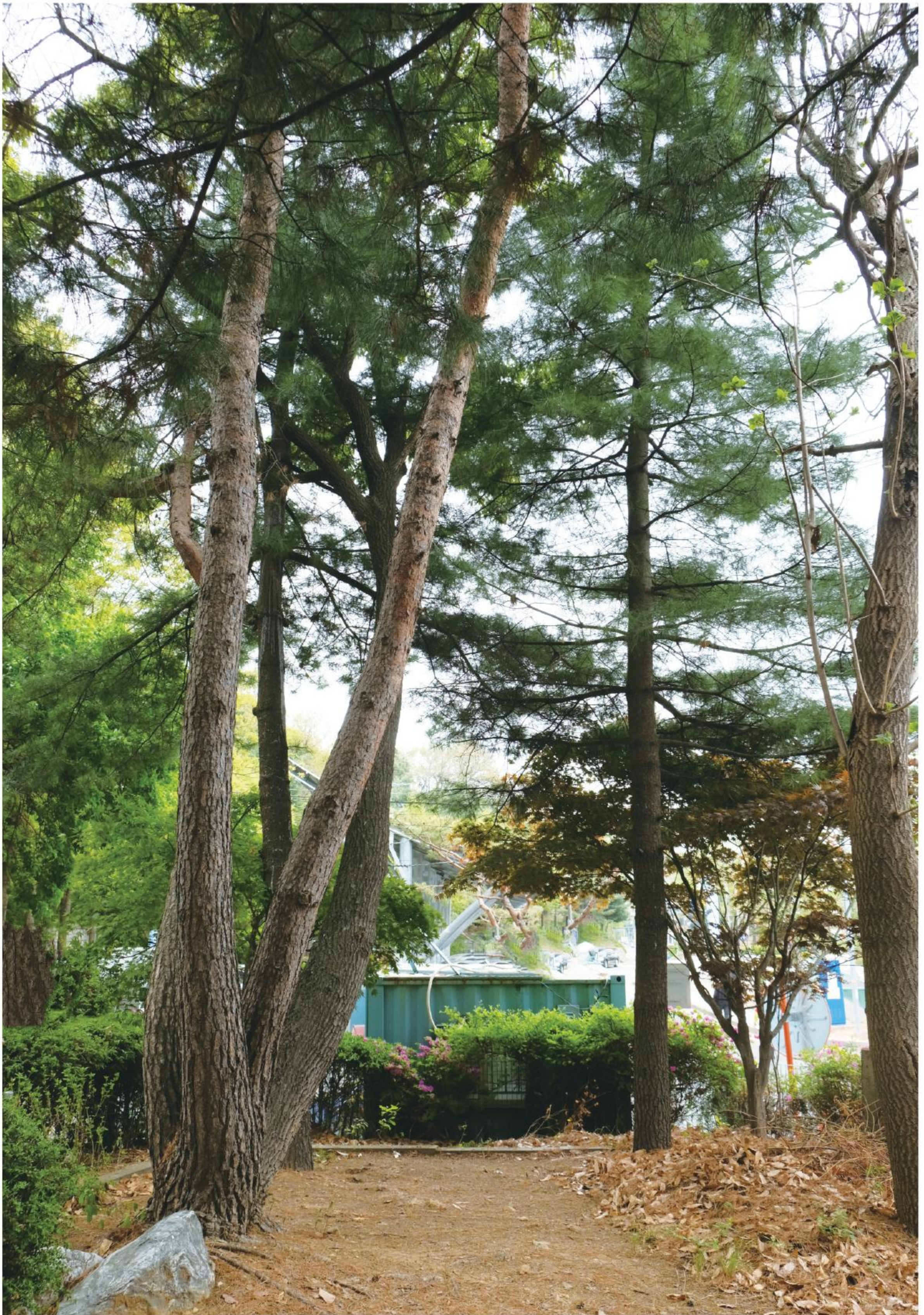




가을 秋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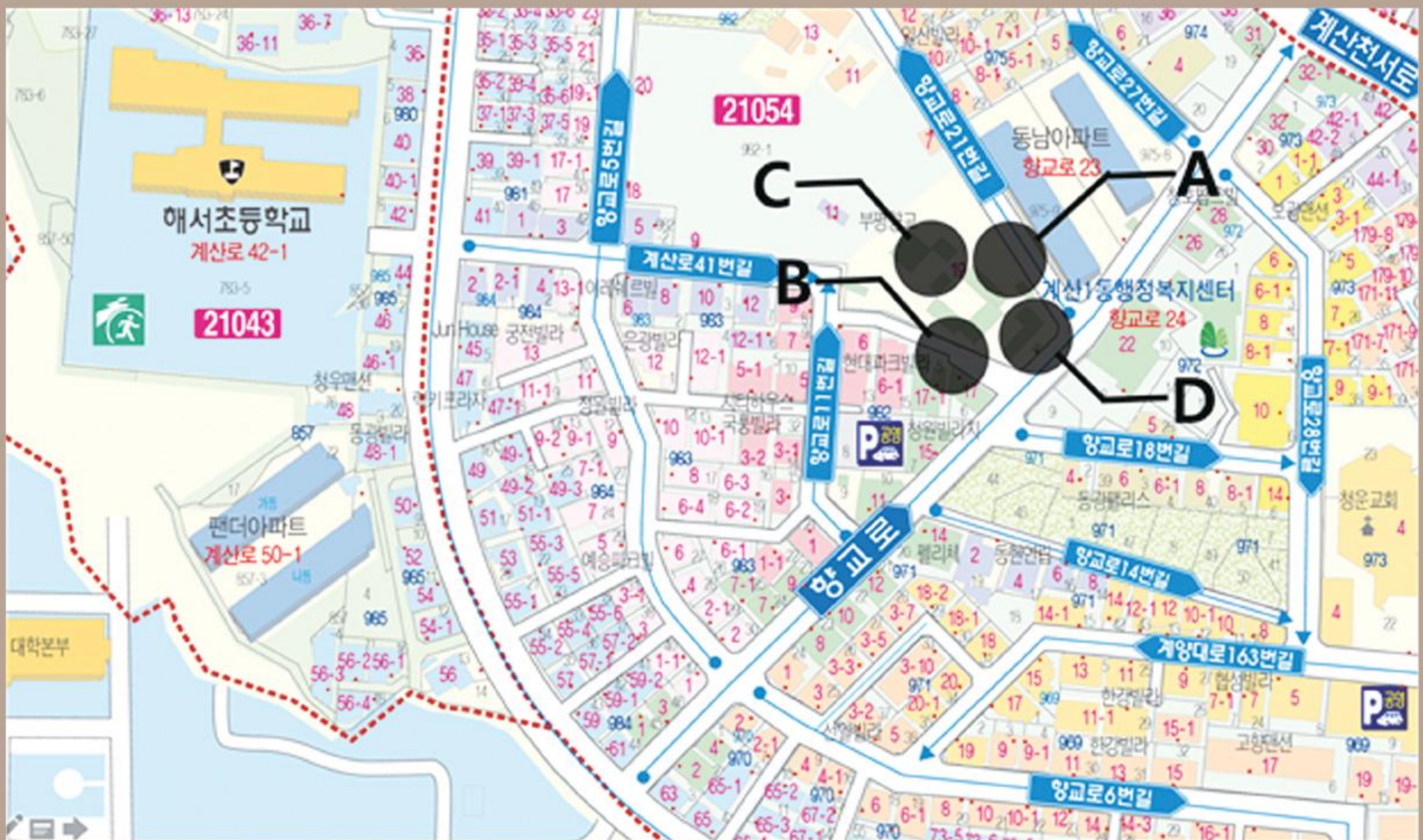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계산동

부평향교 보호수



- A. 부평향교 향나무(지정 큰나무 계양구 7-6)
- B. 부평향교 향나무(지정 큰나무 계양구 7-5)
- C. 부평향교 은행나무(지정 큰나무 계양구 7-7)
- D. 부평향교 은행나무(지정 큰나무 계양구 7-8)

■ 부평향교

향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지역에 세운 교육기관이다.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유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명륜당, 기숙사의 기능을 하는 동재와 서재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향교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이며, 고려시대에 처음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불에 타 사라졌다가 1689년에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웠다. 현재의 건물은 몇 차례 보수를 거친 것으로 홍살문, 외삼문, 내삼문 등이 갖춰져 있고, 향교의 경내와 담장 앞에 느티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등이 위치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향교가 소실될 위기에 처하자 유생이었던 박무영, 박대충, 이언복 등이 위패를 옮겨 계양산 장사굴에 보관해 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안치하였다고 전한다.

향나무

수 종 : 향나무

소재지 : 계산로 41번길 9(계산동 982-1)

지정 큰나무(계양구 7-6)

지정일 : 2003. 05. 14.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미상

높이 : 6m, 둘레 : 1.7m



겨울 겨울



향나무

수 종 : 향나무

소재지 : 계산로 41번길 9(계산동 982-1)

지정 큰나무(계양구 7-5)

지정일 : 2003. 05. 14.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미상

높이 : 5.5m, 둘레 : 1m



겨울 겨울 겨울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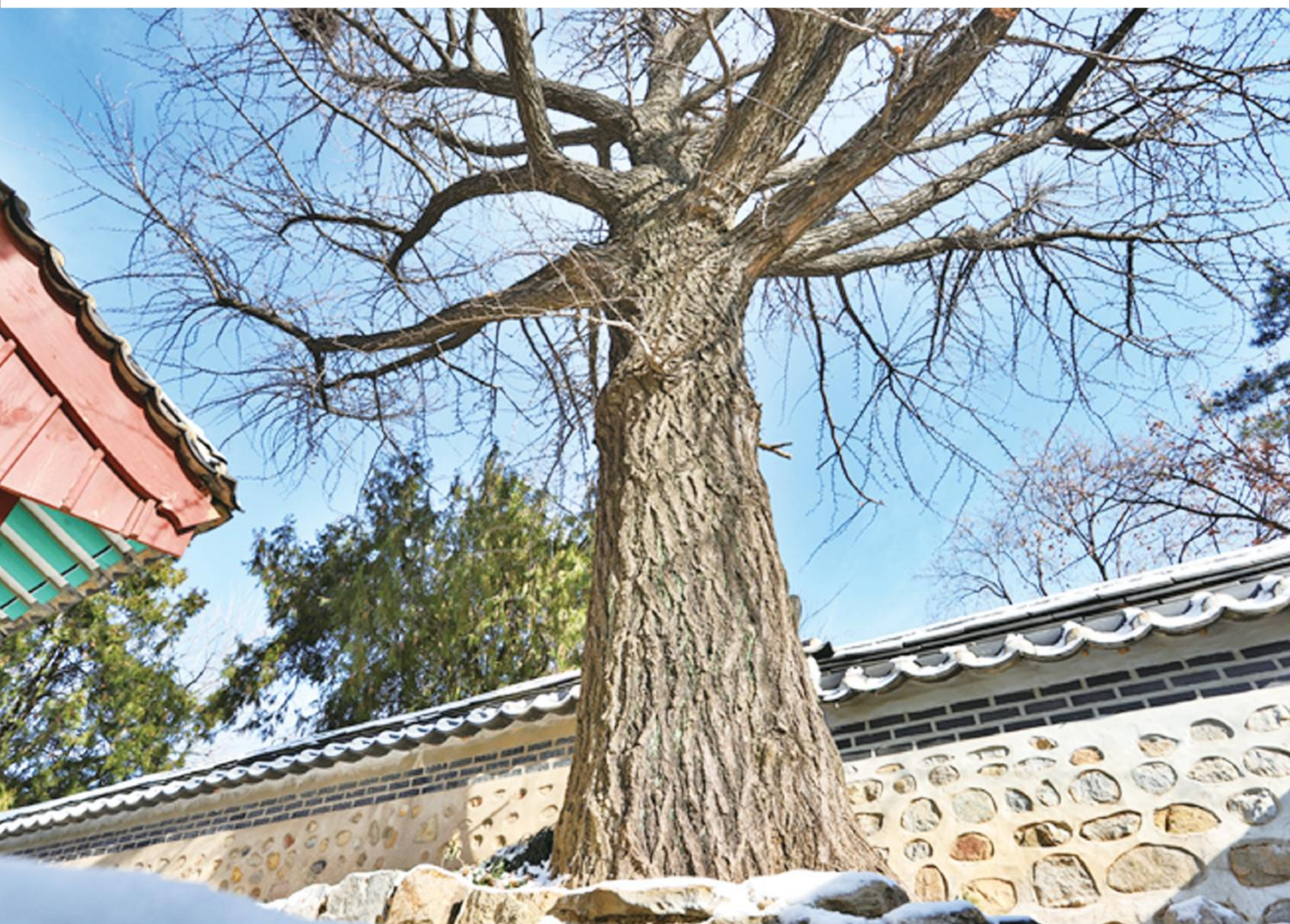
수 종 : 은행나무

소재지 : 계양구 계산로 41번길 9(계산동 982-1)

지정 큰나무(계양구 7-7)

지정일 : 2003. 05. 14.

수 량 : 1주







봄 春

수령 : 미상
높이 : 17m,
둘레 : 3m

가을 秋



겨울 冬





은행나무

수 종 : 은행나무

소재지 : 계산로 41번길 9(계산동 982-1)

지정 큰나무(계양구 7-8)

지정일 : 2003. 05. 14.

수 량 : 1주





겨울 느

수령 : 미상

높이 : 17m, 둘레 : 2.9m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동양동

향나무



A. 동양동 향나무

■ 당산마을 동양동

동양동은 조선시대에 당산면에 속한 동양리(東陽里)였다. 마을 동쪽 끝에는 당산이라고 부르던 낮은 구릉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동양동은 당미, 혹은 당뒀란 마을 이름도 갖고 있다.

동양동은 양지말, 모퉁이말, 동녘말, 서녘말 등의 마을로 구분되어 있었고, 동양동 향나무는 양지말의 뒷산 아랫녘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인근에는 둥그재산이라고 부르는 인천동양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 이선봉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본래 동양동 향나무는 발한가운데에 있었으나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향나무

수 종 : 향나무

소재지 : 동양동 595

지정 보호수(인천광역시 4-7-3)

지정년월일 : 2019. 10. 29.

수 량 : 1주





큰나무

수종	참나무	등록번호	7-9
수령	250년	지정년도	2003
수고	10m	소재지	충청남도 596
나무둘레	72cm	관리자	계양3동장

계양구청

봄春

수령 : 250년

높이 : 10m, 둘레 : 2.4m





겨울 ❄️



동양동 향나무 인근에 있는 이선봉 묘역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3호이다. 조선 성종의 후손인 이선봉과 부인 영월 엄씨의 합장묘 등 전주 이씨 집안의 묘역으로 조성되었다. 영월 엄씨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 피난을 갔다가 청군이 섬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아들인 이필협의 처 구씨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벌말이었던 상야동

상야동은 조선시대에 당산면에 속했던 마을이다. 상야동, 평동, 하야동이 나란히 붙어 있으며, 과거에는 상야리, 평리, 하야리라고 불렀다. 마을들을 합쳐서 ‘야리(野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말로로는 ‘벌말’이라고 했다.

본래 경기도에 속했던 지역이었으나 1989년 인천시에 편입되었다. 상야동에는 큰말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중심지였다.

상야동 한가운데에는 굴포천이 가로질러 지나가는데 상야동 향나무는 굴포천과 맞붙어 있는 상야동경로당 뒤편에 위치해 있다. 본래 큰말의 한쪽 넓은 부지에 있던 것이었으나 주변에 공장과 창고 등이 들어서면서 건물에 갇힌 모습으로 남게 됐다.

향나무

수 종 : 향나무

소재지 : 상야동 165-3

지정 큰나무(계양구 7-2)

지정년월일 : 2003. 05. 14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미상

높이 : 10m, 둘레 : 0.5m, 1.4m, 1.2m







상야동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다. 남쪽으로는 김포 국제공항 활주로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다.

과거에는 상야리천이라고 부르던 하천을 중심으로 농경생활을 유지하며 이어져 온 마을이다.



겨울 冬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장기동

은행나무 / 백합나무



A. 장기동 은행나무

B. 장기동 백합나무

■ 황어장터가 있던 장기동

장기동은 조선시대 황어면 장기리(場基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소를 팔던 우시장인 황어장이 있었다. 지금은 장터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2004년 건립된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과 기념탑이 들어서 있다. 황어장은 인근 지역 중에서는 꽤 규모가 큰 5일장이었다.

황어장은 1919년 3월 24일,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심혁성의 선창에 맞춰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고, 인천의 대표적인 3.1운동으로 이름을 남겼다. 시위 도중에 이은선이 일본 경찰에 의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은행나무

수 종 : 은행나무

소재지 : 장기로 24(장기동 138-5)

비지정보호수

수 량 : 1주





가을 秋

수령 : 미상
높이 : 12m
둘레 : 2.7m









겨울 겨울



장기동 은행나무는 황어장터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상가 앞에 외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계양초등학교 내 백합나무와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습이다.



백합나무

수 종 : 백합나무

소재지 : 장제로 1288(장기동 134)

지정 큰나무

지정년월일 : 2003. 05. 14.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100년

높이 : 16m, 둘레 : 3.6m



가을 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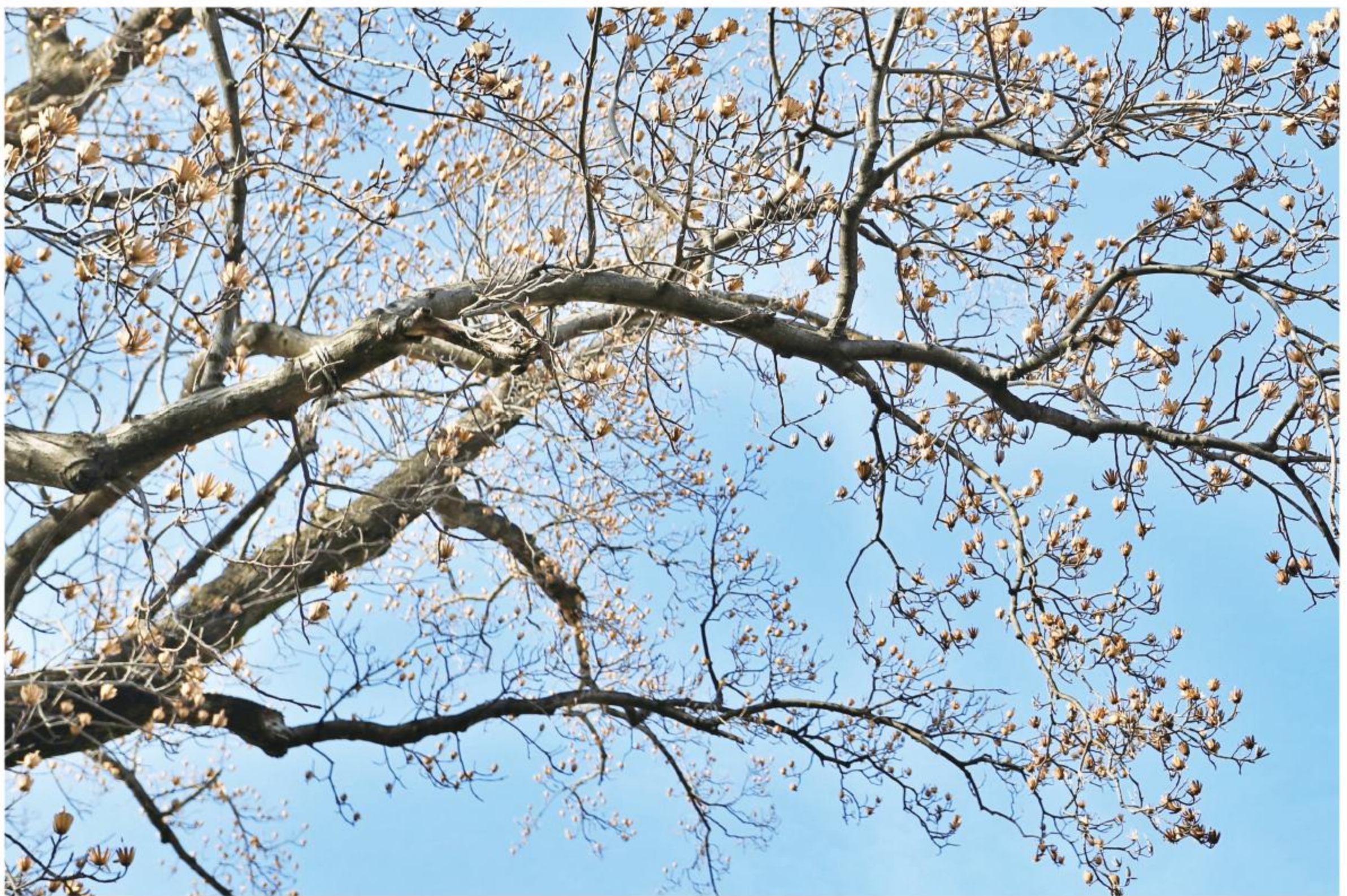
장기동 백합나무는 계양초등학교 내에 있다. 수령이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합나무는 인천시의 시목이기도 하다.





겨울 겨울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갈현동

느티나무



A. 갈현동 느티나무

■ 갈산리였던 갈현동

갈현동은 본래 갈산리(葛山里)라고 불렀던 곳이다. 부평구에 갈산리란 이름의 같은 지명이 생기면서 갈현리로 바뀌었다. 갈현동은 갈미, 침미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침’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갈산(葛山)’이란 지명은 ‘침산’이란 의미를 갖게 된다.

갈현동은 전주 이씨 집안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아 살아 왔고, 지금도 조선 세종의 아들 임영대군 후손들의 묘역인 전주 이씨 묘역이 갈현동 산78번지에 조성되어 있다.

이곳의 전주 이씨 중에는 이찰, 이율 형제가 유명하다. 이찰, 이율 형제는 효자 형제로 이름을 남기고 있으며, 이찰·이율형제정려는 인천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이 두 형제는 광해군 때 인물인데 부친이 병환에 들자 자신들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흘려넣었다고 하며, 양친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 현종이 1670년에 효자정려를 내렸다.

느티나무

수 종 : 느티나무

소재지 : 학교개길 15-29(갈현동 114-2)

비지정보호수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80년

높이 : 22m, 둘레 : 3.8m





가을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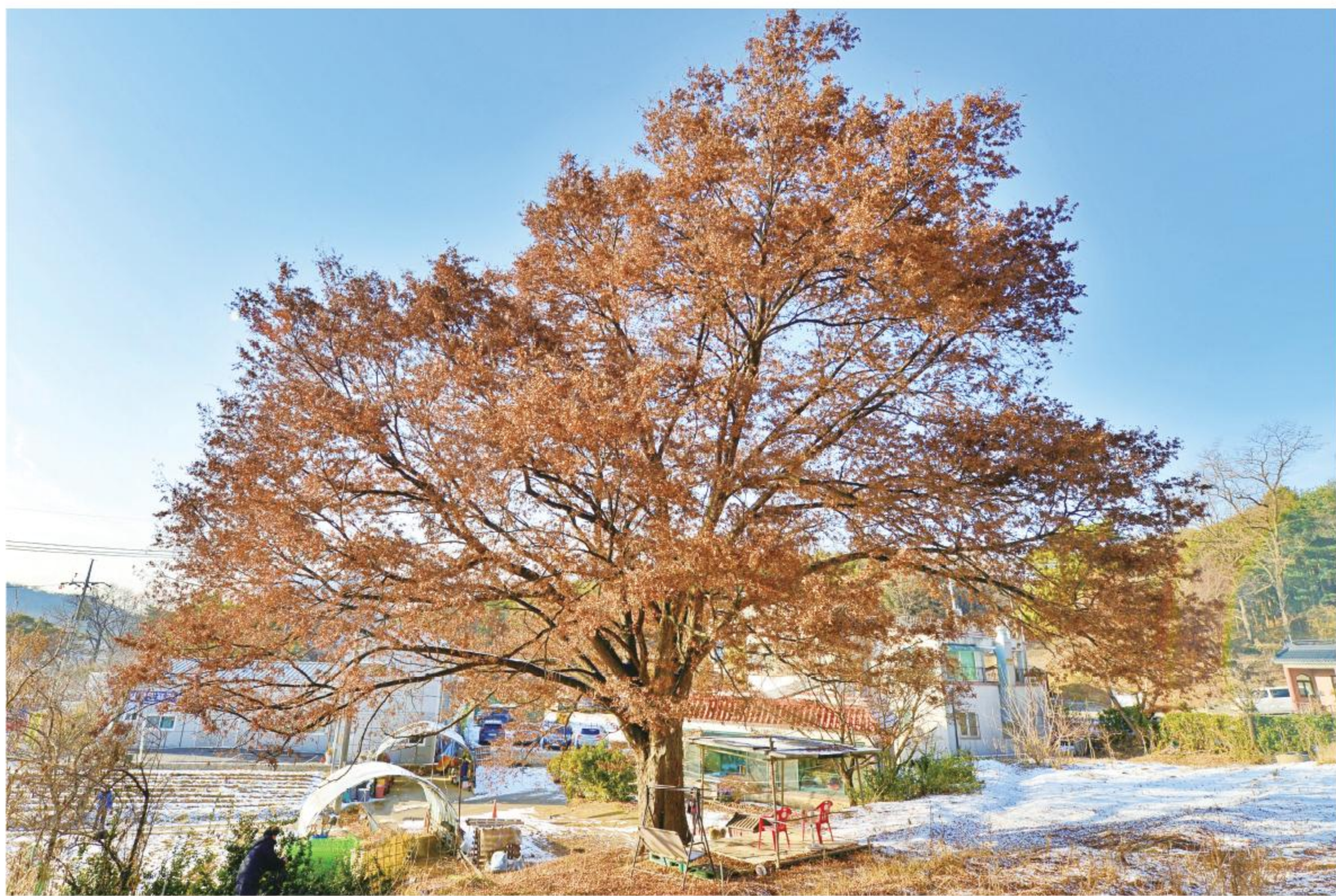
이찰 · 이율형제정려는 아람산 아랫녘에 위치해 있고, 아람산의 북쪽에는 범바위산이 있는데 갈현동 느티나무는 범바위산 남쪽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다. 나무 아래에는 1942년에 ‘식수’ 했다고 적힌 돌로 만든 표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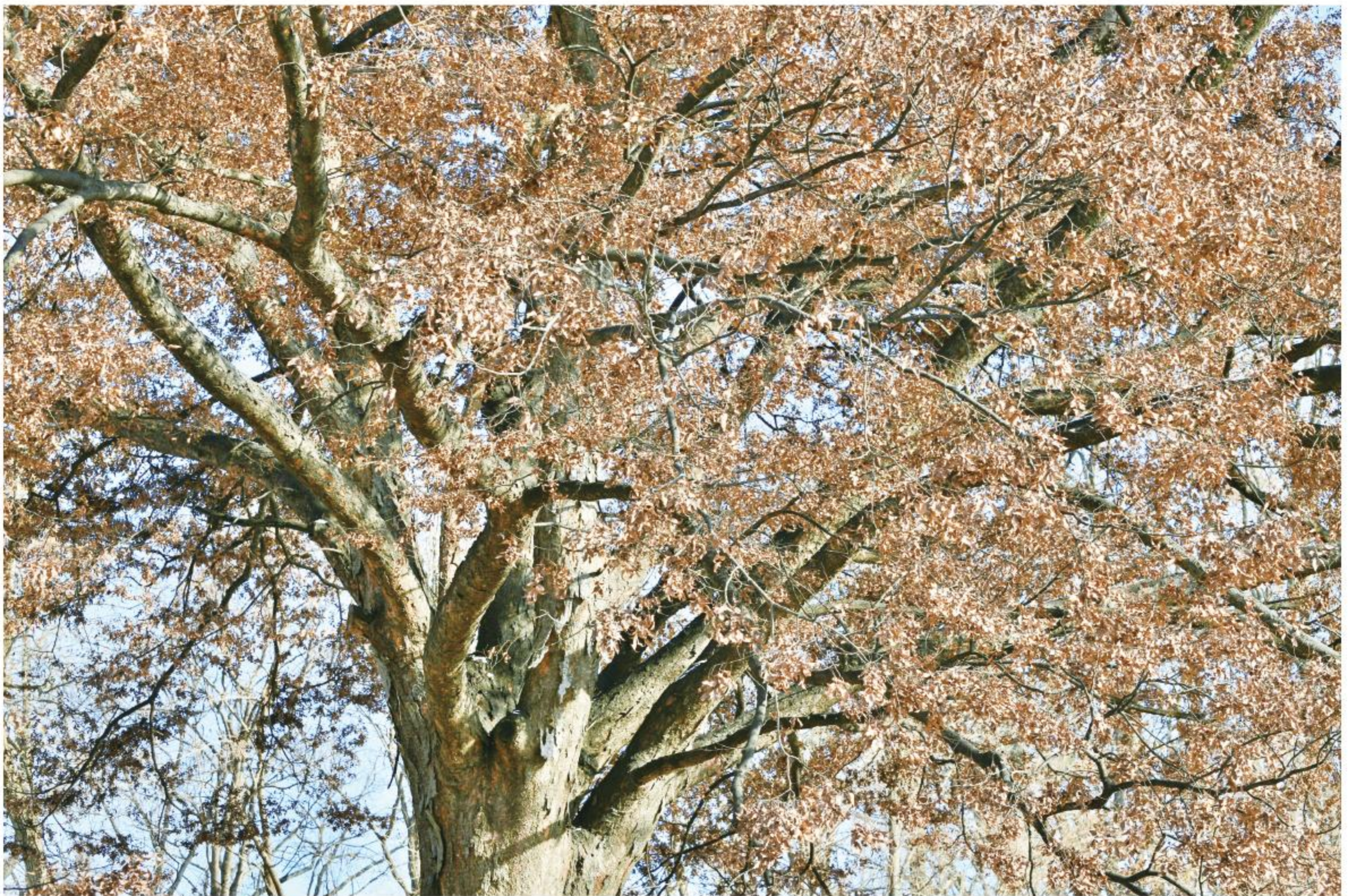




겨울 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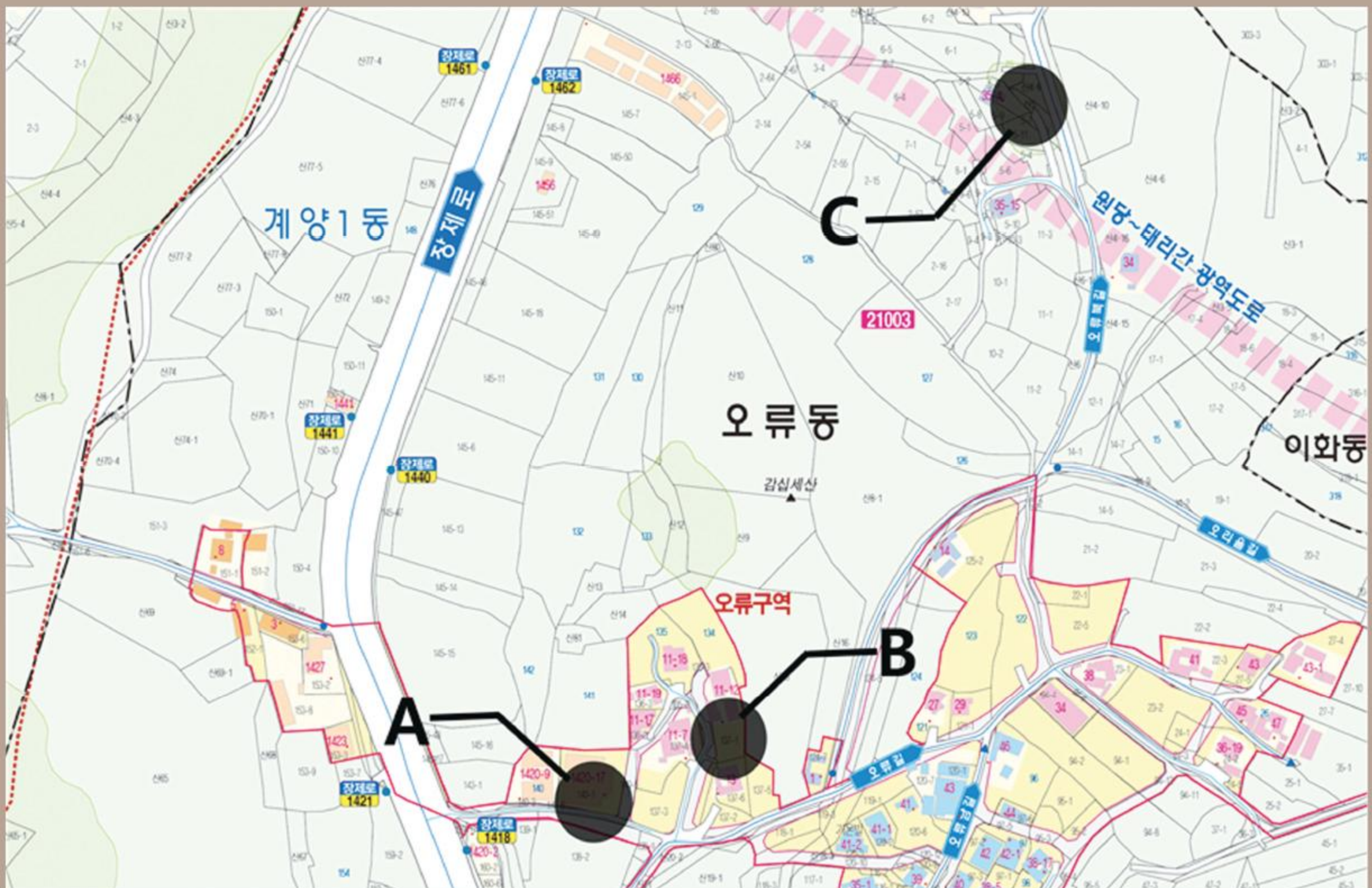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오류동

느티나무 / 향나무



A. 오류동 느티나무

B. 오류동 느티나무

C. 오류동 향나무

■ 파평 윤씨의 터전 오류동

오류동은 뱀곡산, 마루머리산, 감십세산 등이 둘러서 감싼 골에 들어앉은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이화동의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오류동은 오리울, 오릿골, 오류울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마을에서는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고 풀어 말하곤 한다.

오류동은 예전부터 파평 윤씨의 집성촌이었다. 조선 선조 때 부평부사를 지낸 윤명선(尹明善)이 낙향한 후 자손들이 대대로 거주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오류동에서 파평 윤씨 집안은 효자가문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오류동은 7효자 4정려가 나온 ‘효자 마을’이란 별칭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전설도 남아 있어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었다거나 엄동설한에 부모님께 드리려고 연못의 얼음을 깨서 잉어를 구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오류동은 윗말, 가운데말, 아랫말로 구분해 부르곤 한다. 그 중 윗말의 일부는 방아다리말이란 이름도 갖고 있고, 오류동 느티나무 세 그루는 이 방아다리말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

느티나무

수 종 : 느티나무

소재지 : 장제로 1420-17(오류동 140-1)

비지정 보호수

수 량 : 2주





가을 秋

수령 : 80년

높이 : 32m, 둘레 : 3.8m

높이 : 30m, 둘레 : 3.7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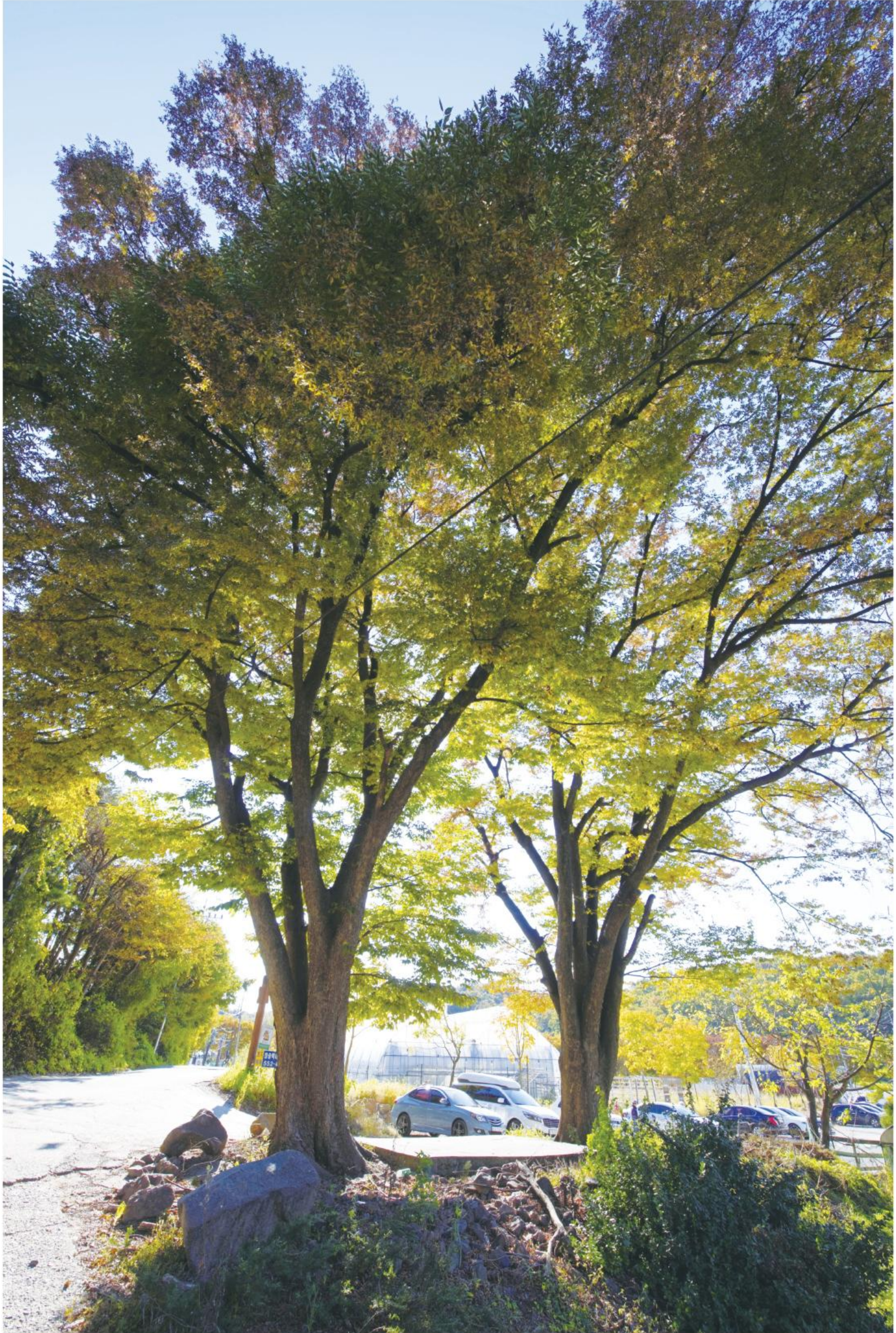


■ 해방둥이 느티나무

오류동 방아다리말로 들어서면 길을 흔히 방아다리길이라고 부른다. 한 쌍이 나란히 서 있는 오류동 느티나무는 이 방아다리길 초입에 있다. 인근에 있는 파평 윤씨 집안에서 심은 것이다. 쌍둥이처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마을을 지키는 장승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 나무를 심은 것은 1945년 무렵이라고 한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윤씨 집안 사람이 작은 묘목을 가져와서 심은 것이 지금과 같이 크게 자랐다고 한다.

당초 지금의 느티나무 한 쌍 옆으로 몇 그루의 느티나무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현재의 오류동 느티나무도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누군가 와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대로 둔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와 조금 떨어진 곳에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하나 더 서 있다. 방아다리말에서 아랫말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아랫녘에 위치해 있다. 이 나무 역시 방아다리길 옆에 있는 한 쌍의 느티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 겨울







느티나무

수 종 : 느티나무

소재지 : 오류길 11-12(오류동 137-1)

비지정 보호수

수 량 : 1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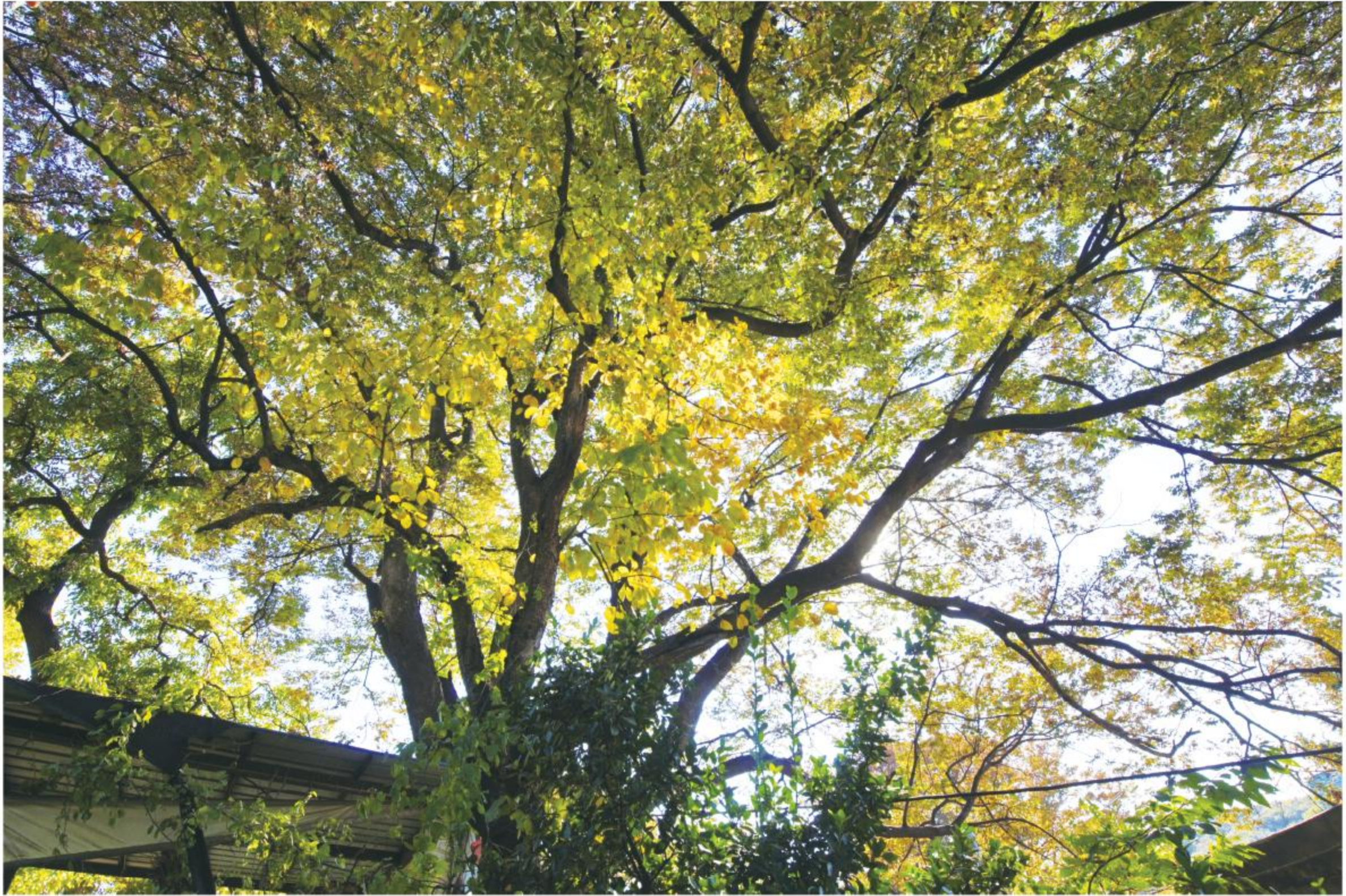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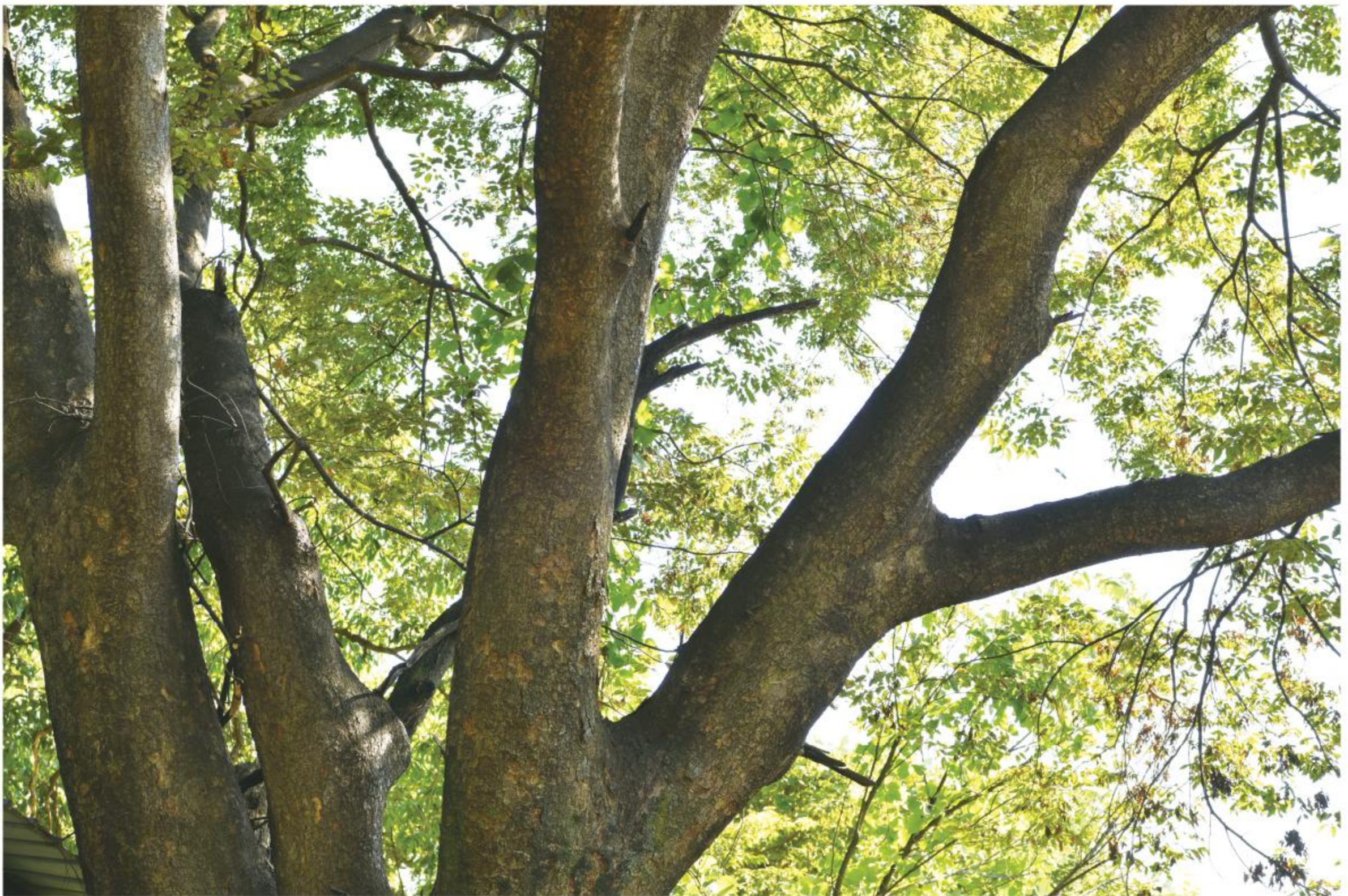
가을 秋

수령 : 미상

높이 : 30m, 둘레 : 3.7m









겨울 겨울





향나무

수 종 : 향나무

소재지 : 오류동 산4-8

비지정 보호수

수 량 : 1주





■ 오류동 향나무

오류동 향나무는 오류동 경로당 앞을 지나 오류북길을 따라 가다 만나는 마루머리산 초입에 위치해 있다. 바로 앞에 파평 윤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군부대 휴양소도 위치해 있다.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군부대 휴양소 안에 한때 부평향교가 위치해 있었다고 하며, 오류동에서 고개 넘어 있는 마을인 이화동 초입에는 부평관아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전한다. 오류동 향나무 인근에는 파평 윤씨 집안의 효자비도 있었다고 하나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류동 향나무는 파평 윤씨 묘역 앞 길가 아래에 비스듬하게 위치해 있어서 길에서 바라보면 제 모습을 온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오류동 향나무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역시 파평 윤씨 집성촌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가을 秋

수령 : 200년

높이 : 10m, 둘레 : 1.1m, 0.6m, 2.3m











겨울 겨울





■ 나무서리 마을 목상동

목상동은 경인아라뱃길의 개통과 함께 옛 모습을 잃은 마을이다. 목상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윗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살았는데 경인아라뱃길이 2012년에 개통되며 아랫말 대부분이 사라졌고, 주민들은 삶터에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물에 잠긴 마을을 떠난 주민들 일부는 인근에 새로 만든 이주단지에 새 보금자리를 꾸몄다.

윗말과 아랫말은 윗나무서리와 아랫나무서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자인 ‘목상(木霜)’을 풀어쓰면 ‘나무서리’가 되는데 이것이 마을의 본래 이름이라고 전한다. 계양산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 주변에 숲이 울창해서 나무에 항상 서리가 내려앉아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계양산을 오르다 보면 만나는 ‘목상동 솔밭’은 지금도 등산객들이 걷고 싶어 하는 숲길 중의 한 곳으로 유명하다.

목상동은 나무서리 대신 ‘나무소리’란 이름도 갖고 있다. 역시 숲이 무성한 마을의 경관에서 유래한 말로 전하며, 이것이 한자화 된 ‘수소리(樹蘇里)’ 또한 마을의 옛 이름으로 전승된다.

측백나무

수 종 : 측백나무

소재지 : 소재지 : 목상동 103-1

비지정 보호수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800년

높이 : 10m, 둘레 : 1.5m, 1.6m





■ 마을 쉼터 측백나무

목상동은 고려시대 수주의 중심지로 보기도 한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라는 의미다. 긴 시간을 이어 온 마을의 내력은 현재까지 이곳을 지키는 청송 심씨 가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목상동 측백나무는 청송 심씨 가옥 곁에 있다.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심씨 집안만큼이나 측백나무는 몇 백 년을 묵었는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됐다. 그리고 그러한 연륜에 어울리는 마을사람들의 기억도 나무의 나이테에 켜켜이 쌓여 왔다.

목상동 측백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샘물을 오가는 길가 옆에 바로 붙어 있다. 지금은 샘물의 기능도 거의 사라지고 주민들도 많이 떠났지만, 한때 측백나무는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 쉬다 가는 쉼터이기도 했다.

목상동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측백나무는 최근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가지가 부러져 과거의 늠름했던 모습을 잃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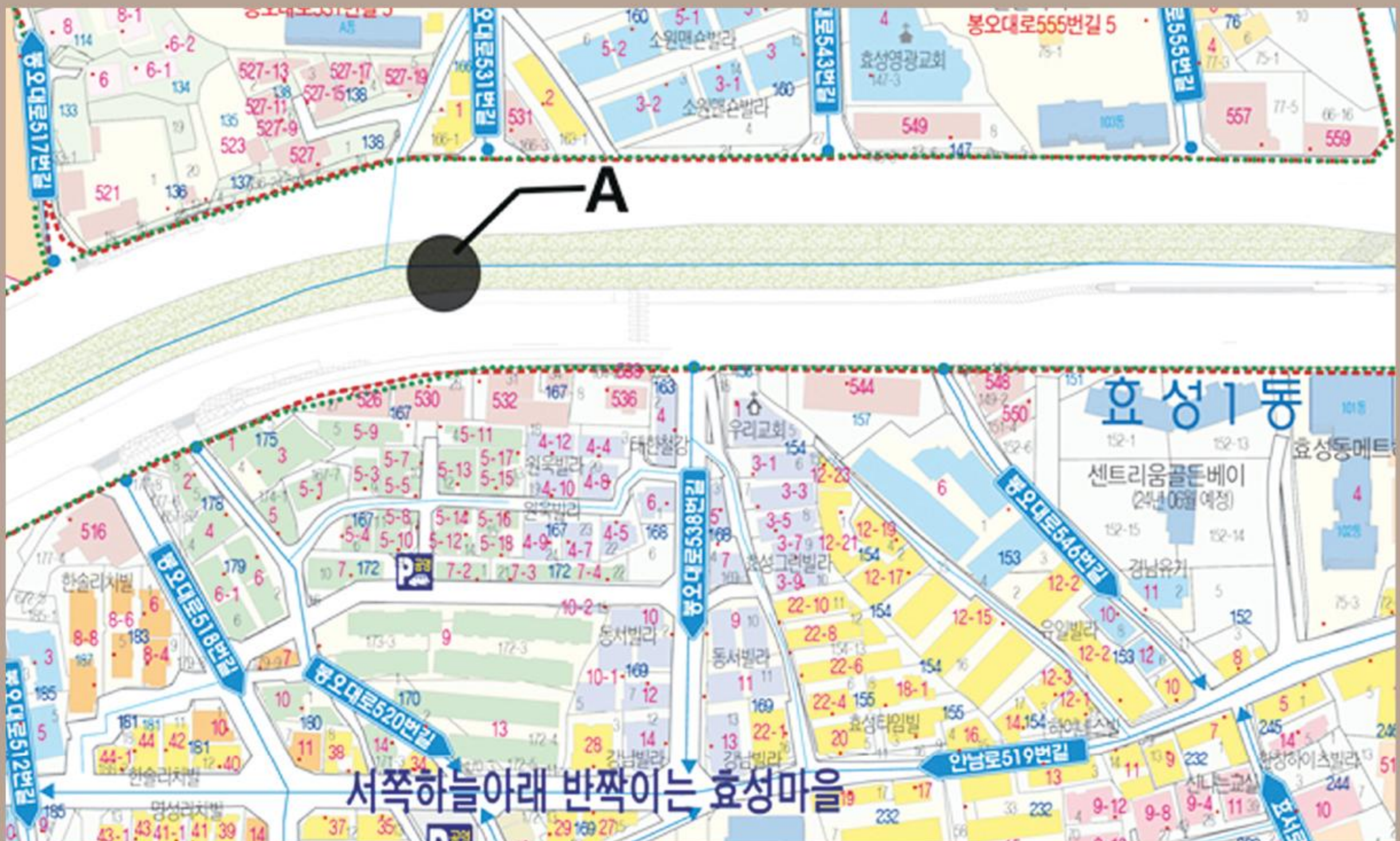


앞메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목상동 측백나무 역시 마을 앞의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물길에
간혀 옛 경관을 잃었다.

계양의 보호수 이야기

효성동

팽나무



A. 효성동 팽나무

■ 도당고사를 지냈던 효성동

효성동은 조선시대 마장면에 속한 효성리(曉星里)였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지명인 서정(曙町)으로 바뀌었고, 광복 후 옛지명인 효성동으로 다시 고쳤다.

효성동은 새벌, 새벌이, 새별, 샛별 등의 이름을 갖고 있다. 본래 넓은 들로 구성된 마을이었는데, 1966년 이곳에 부평수출공업단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옛 마을의 모습을 대부분 잃었다.

효성동은 마을제의인 도당고사를 매년 지낼 만큼 전통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효성동 도당고사는 음력 7월 초하루와 10월 초하루에 지냈다.

팽나무

수 종 : 팽나무

소재지 : 봉오대로 526-1(효성동 167-27) 앞

비지정 보호수

수 량 : 1주





봄春

수령 : 미상

높이 : 8.5m, 둘레 : 2.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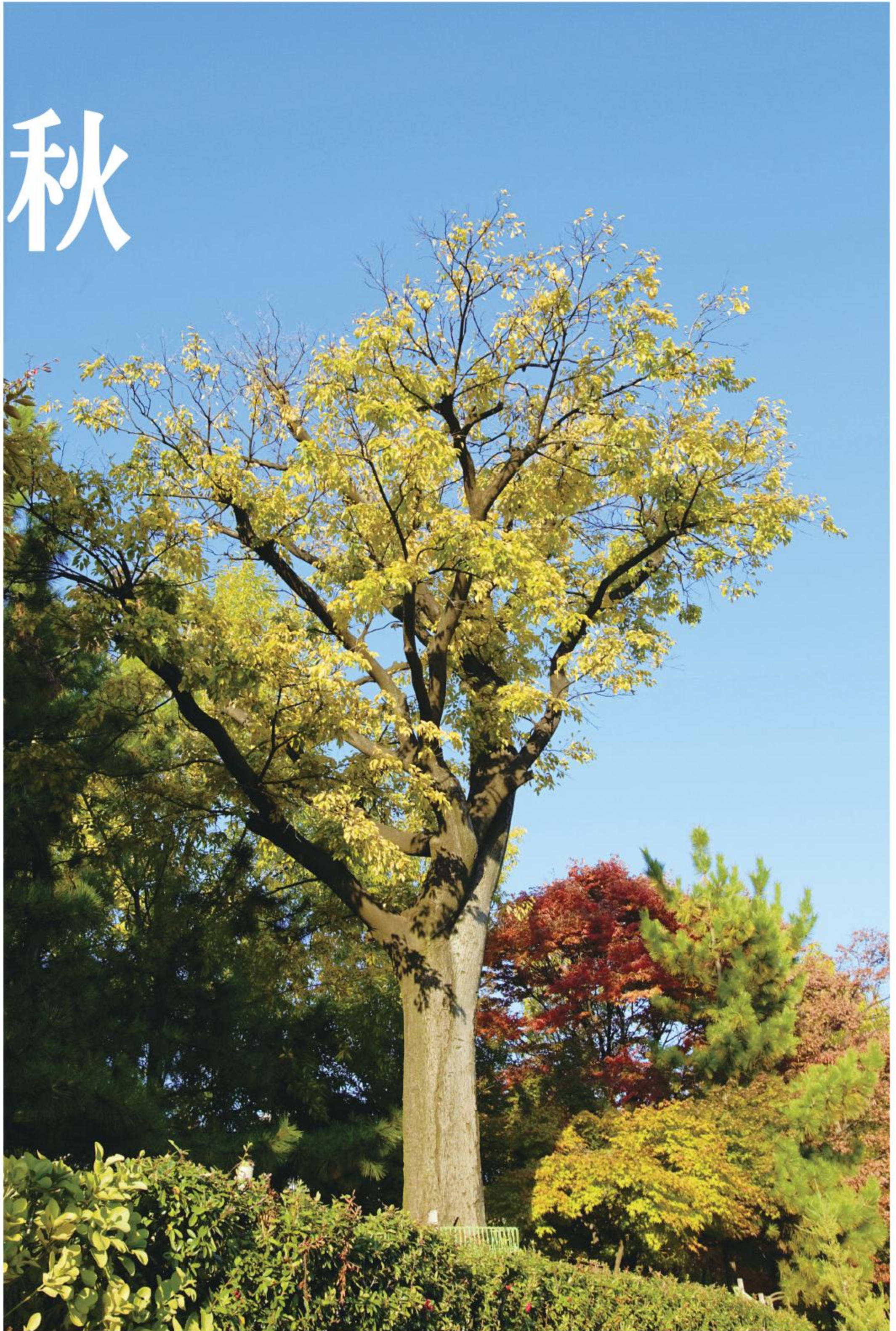




효성동에서 모시던 신은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였고, 도당할아버지 마을에 있는 팽나무를 당나무로 해서 모셨다고 한다.

최근 효성동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마을의 옛 풍경과 도당고사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당나무였던 팽나무 역시 마을이 사라지면서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 봉오대로 한가운데로 옮겨졌다.

가을 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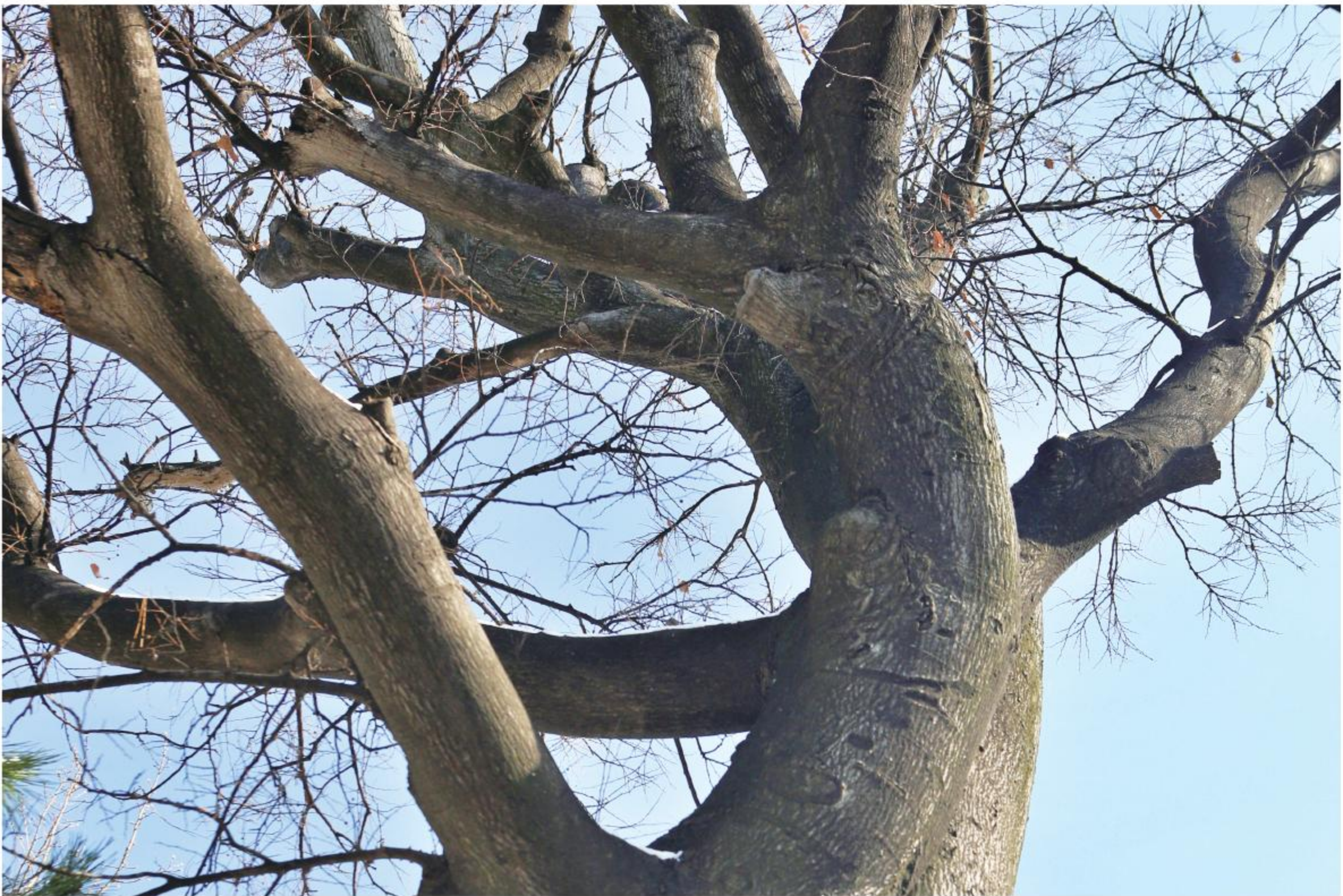




겨울
겨울







참고문헌

「인천의 지명유래」, 인천광역시, 1998.

국토지리정보원 편,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조기준, 「부평사연구」, 백암문집간행위원회, 2011.

계양문화원, 「계양의 전통의례」,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8.

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 「계양의 어제와 오늘」, 계양구, 2001.

「옛 부평읍내 계산동」, 계양문화원, 2019.

「아라뱃길을 품은 계양동」, 계양문화원, 2022.

계양구청 홈페이지(<https://www.gyeyang.go.kr>)



